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36호 【루계 제26010호】 주체107(2018)년 5월 16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군꾸리기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군꾸리기를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대성구역 려명동 34인민반 리화순은 반일애국렬사유가족의 본분을 자각하고 삼지연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는데 절실히 필요한 설비들을 지원함으로써 충정의 가풍을 변함없이 이어가고있다.

청년들을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주는 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보답할 일념안고 만흥무역회사 산하단위 무원 김국명은 216사단에 여러차례 찾아가 돌격대원들의 생활에 뜨거운 혈육의 정을 기울였다.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서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할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평양외국어대학 평양외국어학원 차영란은 공사를 돕는 일을 스스로 찾아하였다.

광복지구상업중심 로동자 조현아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을 훌륭히 꾸리는데 이바지할 충정의 한마음안고 가정에서 성의껏 마련한 많은 물자들을 보내주어 건설자들을 고무하였다.

삼지연지구를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더욱 훌륭히 꾸릴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류성지도국 산하단위 부원 리경순은 성의있는 지원으로 대상건설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돌격대원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주었다.

지난 기간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바쳐온 체취공업성 무원 전명해는 삼지연군꾸리기도 성심성의로 지원하여 대중의 존경을 받고있다.

혁명의 성지에 참된 삶의 자욱을 새겨갈 열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선교교려약공장 로동자 장미는 돌붙는 전투장에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면서 지원사업에도 앞장섰다.

대외경제성 산하단위 김명룡, 선교은하피복공장 작업반장 리철만은 삼지연군을 혁명전통교양의 대로천박물관으로 전변시키는 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인민보안성 산하단위 로동자 김현명, 기상수문국 산하단위 기사 정광철도 혁명의 성지건설에 헌신하고있는 돌격대원들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삼지연군을 전국의 모범군, 본보기군으로 훌륭히 꾸리기 위한 투쟁에 앞장섬으로써 당의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할 열의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2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의 인터네트들 특집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2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의 인터네트들이 그이의 영상사진문헌을 모시고 5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특집하였다.

련방공산당 노보씨비르스크주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전당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하는것을 당건설의 중요한 요구로 내세우시고 우리 당을 사상의 힘, 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불패의 전위대오로,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는데 대해 상세히 전하고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긍지는 김정은위원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인터네트잡지 《렝위위》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비상한 용단》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비상한 용단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는 특기할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갈 의지를 표명하시였다.

얼마전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이루어지고 판문점선언이 채택되여 조선반도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된것은 전적으로 그이의 대범하고 용의주도한 결단에 의한것이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대용단은 상상을 초월하는 담력과 과학적인 통찰력, 비상한 정치적판단을 기초로 하고있다.

조선반도와 복잡다단한 현 국제정치정세의 주도권을 틀어쥐고나가시는 그이의 대용단들로 조선통일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서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계속 펼쳐지게 될것이다.

인터네트홈페지들인 《그리존쯔페스쩨쥬》, 《그리존-페르쏘날》,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터네트신문 《포룸》은 《김정은, 그이는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인민이 누리는 행복》 등의 제목들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사랑의 화원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지고있는 우리 조국의 참모습을 소개하는 글들을 편집하였다.

조선통일위업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인디아정당, 단체인사들 공동성명 발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지지하여 인디아공산당 전국리사회 비서인 전인디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아룬 꾸마르 안잔, 인디아공산당(맑스주의) 중앙위원회 위원 하리싱 캉, 인디아소수민족전국위원회 위원 프라빈 다와르, 전인디아진보전선 중앙위원회 비서 쥐. 데바라잔, 인디아인민당 고위지도자 비제이 쫄리가 4월 2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장을 펼쳐놓으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에는 수십년간에 걸치는 분렬과 대결을 끝장내고 조선민족의 화해와 통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가 명시되여있다. 외세에 의하여 갈라졌던 조선민족은 서로 힘을 합쳐 평화와 진보의 길로 나갈수 있게 되였다.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의 념원인 조선통일위업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우리는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시려는 김정은각하의 강인담대한 의지와 결단에 의해 마련된 판문점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조선중앙통신】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자

9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혁명적인 총공세로 1.5배의 공사실적 기록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이것이 당에 대한 충정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장이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세차게 들끓고있다.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를 다그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각 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한달 남짓한 기간 21만 8 000여㎥의 토량을 처리하고 19만여㎥의 성토, 9만여㎥의 굴화장공사를 해제끼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자랑찬 성과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무조건 결사관철하여 황남땅을 생명수가 철철 흘러넘치는 풍요한 천야로 전변시키려는 물길건설자들의 불타는 애국충정이 낳은 결실이다.

물길공사중앙지휘부의 일군들은 맡은 대상공사를 최단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내기 위해 일별, 주별, 월별공정계획을 높이 세우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치였다.

이들은 공사기일을 앞당길수 있는 가능성과 예비를 총동원하는 한편 새로운 공법과 창의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공사장에 드세찬 집단적경쟁열풍이 휘몰아치게 하였다. 또한 저수지언제건설을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그에 맞게 로력조직과 지휘를 합리적으로, 기동적으로 진행하여 공사속도를 높여나갈수 있게 하고있다.

전투장마다에서 첨입식정치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공사장은 불도가니로 화하였다.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이 충폭발되는 속에 각 려단들에서는 새 기록, 새 기적창조를 위한 치렬한 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졌다.

저수지언제건설을 맡은 평양시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려단의 일군들은 들끓는 현장에 전투좌지를 정하고 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해나갔다. 이들의 작전에 따라 10여대의 중량화물자동차들과 굴착기가 공사장에 집중배치되고 장석공사를 힘있게 내밀기 위한 돌채취전투도 립체적으로 벌어졌다. 결과 언제 전구간에 대한 배수돌담공사를 최단기간에 결속하여 성토작업속도를 1.5배로 높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물길기계화사업소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불전기계들의 가동률이자 언제공사실적이라는것을 자각하고 교대전 점검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워 중량화물자동차들과 굴착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함으로써 련일 혁신이 창조되게 하였다.

물길굴진부장에서도 혁신의 새 소식들이 전해졌다.

자강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맞받아 뚫고나가며 물길굴공사속도를 높여 종전기록을 훨씬 뛰여넘었다.

려단일군들은 굴착장과 콩크리트피복공사, 비력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단위들을 고정배치함으로써 시간당 작업실적을 올릴수 있게 하였다. 또한 돌격대원들이 설비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평안북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당의 부름에 결사관철의 뢰성으로 화답할 열의밑에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려단에서는 도강과 물길굴확장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낼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력량을 총동원하였다. 이와 함께 구성시대대를 본보기단위로 내세우고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일으켜나갔다. 모든 대대들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맡겨진 물길굴진실과제를 계획된 날자보다 앞당겨 끝낼수 있는 전망이 마련되였다.

다른 려단들에서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련속공격전을 들이대고있다.

지금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에 동원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9월의 대축전장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드높은 열의에 넘쳐 전투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전명일

회령시의 10여개 대상건설 완공

함경북도에서

함경북도에서 영광의 땅 회령시를 더욱 훌륭하게 전변시키기 위한 대상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에서는 회령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분출시켜 최근 몇해어간에 회령군민돼지공장을 비롯하여 10여개에 달하는 대상건설을 훌륭하게 완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회령시를 국경도시답게 더 잘 꾸리기 위하여서는 이미 작성된 도시건설총계획도에 근거하여 도시건설을 전망성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회령시를 보다 훌륭하게 꾸리는것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중심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시의 대상건설을 당적으로 힘있게 밀어주었다.

도당책임일군들은 시에서 모든 건설력량을 대상건설에 집중하도록 조건을 보장해주는 한편 살림집과 문화후생시설들, 공공건물을 비롯한 건축물들을 특색있게 건설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내각에서는 일군들을 과견하여 성, 중앙기관들과 도와의 련계를 강화하며 세멘트수송을 비롯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현지에서 제때에 풀어나가게 하였다.

시에서는 건설지휘부를 조직하고 건설력량을 정비보강하였다.

건설지휘부일군들은 건설에서 주타격방향을 옳게 정하고 경제적잠재력과 력량을 집중시켜 하나하나 모가 나게 해제끼였다. 또한 시공단위들에서 선하부구조, 후 상부구조건설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철강재생산기지, 건재생산기지 등을 튼튼히 꾸려놓았다. 그리하여 철강재와 세멘트를 비롯한 부족되는 건설자재와 물자들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보장하였다.

시책임일군들은 매일 현지에서 총화사업을 실속있게 하면서 건설자재와 물자를 앞세워 보장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영광의 땅 회령시를 훌륭하게 전변시킬 불타는 일념안고 시급기관들과 시안의 공장, 기업소일군들, 근로자들, 동, 인민반의 주민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회령군민돼지공장건설장에서 비약의 열풍이 세차게 나래쳤다.

시안의 당원들, 근로자들과 인민군군인들은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면서 10여만㎥에 달하는 토량처리를 단 15일동안에 해제끼였으며 많은 블로크를 자체의 힘으로 생산하였다. 시녀맹원들은 천수백㎥에 달하는 구내로장과제를 20여일동안에 수행하였다.

회령학생소년궁전건설을 맡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내부에 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합리적인 공법들을 받아들여 공사속도를 높이였으며 자체의 힘으로 대형트라스조립을 10여일동안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목재가공공장을 비롯한 어러 단위들에서는 수력전에 달하는 전구와 비품 등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 건설기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하였다.

시체육관을 면 후날에도 손색없는 창조물로 일떠세울 일념안고 떨쳐나선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물조공사와 내외부공사를 힘있게 다그쳤다. 이들은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10여개의 육중한 트라스제작을 자체로 해제끼였다. 그리하여 시체육관을 번듯하게 일떠세우고 그옆에는 능력이 큰 야외수영장도 건설하였다.

시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시학구판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끝냈으며 시수영관건설도 힘있게 다그쳤다.

새 기록, 새 기적창조의 불길은 살림집건설장과 오수정화장건설장, 태양열남새온실건설장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시녀맹원들은 돌격대를 뭇고 공사장들에 나가 힘있는 로력적지원을 진행하였으며 성의있는 후방사업과 다양한 경제선동으로 건설자들의 사기를 부쩌 높여주었다.

내각과 도당위원회,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대상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물자들을 보장해주어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될수 있게 하였다.

10여개의 대상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해제끼 시의 면모를 일신시킨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달성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회령시를 보다 훌륭하게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봄누에치기준비 적극 추진

자강도에서

자강도에서 당면한 봄누에치기준비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또다시 누에고치생산에서 최고실적을 돌파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대중을 힘있게 몰려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강도에서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자면 잠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잠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도에서는 이미 100여정보의 뽕나무묘목장을 새로 꾸리고 많은 면적의 뽕밭에 새품종 뽕나무심기를 진행하여 뽕잎생산을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은데 맞게 당면한 봄누에치기준비에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도에서는 성간군 성하잠업전문협동농장과 만포고치농장 등 령도업적단위들을 본보기단위로 정하고 잠기구전시회를 비롯하여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보여주기사업과 기술전습회를 진행한데 기초하여 당면한 누에치기준비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도록 대중을 고무추동하고있다.

도에서는 짧은 기간에 수십동의 잠실들을 새로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어 성과를 이룩한데 맞게 가설막들에 대한 보수를 다그치고있다.

도일군들은 누에고치생산을 늘이는것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틀어쥐고 현지에 나가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있다.

도안의 잠업전문협동농장, 협동농장들의 고치작업반, 분조들에서 뽕잎생산이자 누에고치생산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지력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잠업부문 근로자들은 전호식구뎅이파기를 진행하고 많은 거름을 내기 위한 전투도 힘있게 벌리였다.

이들은 뽕밭을 밀식으로 조성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내밀데 이어 누에고치생산에 필요한 잠기구들도 마련하고있다. 이와 함께 뜨락또르와 부림소들을 동원하여 뽕밭갈이를 하면서 병해충구제, 화학비료주기, 소석회생산, 뽕나무심기 등을 하였다.

만포시안의 잠업부문 근로자들은 가지자르기, 거름주기 등 뽕나무비배관리를 기술적요구대로 하였다.

강계시일군들은 정보당 뽕잎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방도의 하나가 뽕밭을 밀식으로 조성하는데 있다는것을 자각하고 정보당 그루수를 보장하도록 하는데 힘을 넣었다.

장강군, 고풍군에서는 뽕나무밭을 밀식으로 조성한데 이어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있다.

다른 시, 군들에서도 잠실건설을 끝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 가설막들에 대한 보수를 다그치고있다.

도에서는 지난해보다 두배나 더 많은 누에치기소독약을 생산할 목표를 내세우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도에서는 봄누에치기준비에서 성과가 확대되는데 맞게 지난 기간 누에고치생산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과 함께 잠업부문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기술학습을 적극 내밀고있다.

도일군들의 빈틈없는 작전과 지휘, 근로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일본새에 의해 올해 누에고치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는 전망이 마련되고있다.

특파기자 김순흥

전력생산성과 계속 확대

동평양화력발전소에서

당에서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동평양화력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지난 4월 전력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5월에도 전력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화력에 의한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불비한 발전설비들을 정비보강하여 전력손실을 줄이고 최대한 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이곳 발전소의 당, 행정일군들은 들끓는 생산현장에 전투좌지를 정하고 대중을 최후승리를 위한 경제건설대진군에로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일군들은 화선의 기관차가 되여 앞세를 메고 내달리면서 설비관리, 기술관리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특히 보이라들의 정비보수를 일정계획대로 다그치도록 하고 연소효률을 높이며 발전기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예견성있게 해나가고있다.

열생산직장과 타빈직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열생산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증기보장이자 전력생산성과라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자체로 원만히 풀어나가고있다. 이곳 설비운전공들은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보이라를 정상운영하여 호기당 증기생산량을 종전보다 훨씬 끌어올리고있다. 조작공들도 보이라의 특성에 맞게 석탄투입량과 송배풍기조절을 합리적으로 하여 연료를 극력 절약하면서도 연소효률을 높이고있다.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여 9월의 대축전장을 뜻깊게 장식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는 타빈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현행생산조건에 맞게 호기별부하분배를 과학적으로 하여 같은 증기를 가지고도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있다. 특히 이곳 운전공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여 호기마다에 만부하를 걸고있다. 이들은 설비운영과정에 나타나는 사소한 이상요소들도 제때에 퇴치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타빈발전기의 가동률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나가고있다.

전기타빈보수직장과 열설비보수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보이라보수와 각종 전동기들의 수리를 질적으로 다그침으로써 전력증산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김국철

대상설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리봉규 촬영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아서(28)

사회주의전면적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선포한 당 제4차대회

온 나라에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받아안은 격정의 파도가 세차게 일렁이는 속에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은 우리는 참관자들과 함께 사회주의전면적건설시기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호실에 들어선 우리의 눈앞에는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라는 글발이 안겨들었다.

우리 당력사에 승리자의 대회, 단결의 대회로 아로새겨진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

강사는 먼저 당 제4차대회가 열리던 당시의 력사적환경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를 총화하고 7개년계획의 웅대한 전망과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위대한 변혁이 일어나던 시기였다.

사회주의기초건설의 과업이 빛나게 완수됨으로써 우리 나라에는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당의 통일과 단결이 백방으로 강화되였으며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가 전례없이 높아졌다.

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변혁이 일어나고 우리 혁명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있던 그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를 총화하고 새로운 전망과 투쟁목표를 제시할것을 구상하시였다.

당대회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력적으로 활동하신데 대하여 해설한 다음 강사는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주체50(1961)년 9월 11일 평양대극장에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가 열리였다고 하면서 벽면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문헌을 정중히 우러렀다.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상사진문헌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우러르며 우리는 깊은 감회에 잠겨 력사의 그 나날들을 경건한 마음으로 더듬어보았다.

총결기간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를 총화하신데 이어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휘황한 설계도인 제1차 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에 의거하여 전면적기술개건과 문화혁명을 수행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우리는 사회주의적공업화를 실현하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꾸리며 모든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며 과학과 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또한 앞으로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그의 령도적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 우리 당의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관철을 위한 과업 등 우리 혁명과 건설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인 지침을 제시하시였다.

참으로 당 제4차대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총화한 승리자의 대회, 전당이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불패의 위력을 시위한 단결의 대회였으며 사회주의공업화의 완성과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웅대한 강령을 제시한 력사적인 대회였다.

당 제4차대회가 가지는 력사적의의를 다시금 가슴깊이 새기며 우리는 《대안의 사업체계》라는 글발이 있는 벽면으로 향하였다.

주체50(1961)년 12월 15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상사진문헌을 비롯한 여러상의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강사는 당 제4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변천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개선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었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2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함에 대한 과업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대안전기공장(당시)에 나가시였다.

한겨울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른아침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발전기직장으로부터 시작하여 매 직장을 돌아보시였으며 로동자들의 살림집과 합숙, 식당에 들리시어 생활형편과 부식물공급정형까지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공장의 관리운영에서는 풀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생산에 대한 당적, 정치적지도체계가 똑바로 서있지 않은것이며 생산자들이 공장관리운영사업에 대하여 책임지게 되여있지 않은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실발전에 뒤떨어지고있는 이러한 낡은 공업관리체계를 가지고는 생산자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충분히 발양시킬수 없으며 발전된 사회주의적대규모경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없다는것을 꿰뚫어보시였다.

이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장, 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진행하고 정치사업을 앞세워 생산자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며 우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어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훌륭한 경제관리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시였다.

강사의 안내를 받으며 당시 우리 인민의 투쟁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과 신문자료들을 돌아보며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창조하신 력사적경위와 그 우월성에 대한 해설도 들었다.

농촌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지도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전의 행정식관리체계대신 기업적방법에 의한 새로운 지도관리체계를 내오는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 농촌경리에 대한 행정적지도기능을 맡고있던 군인민위원회로부터 농업에 대한 지도기능을 떼내어 농촌경리를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전문적인 농업지도기관인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당시 군농업협동조합경영위원회)를 내오도록 하시고 친히 기구까지 짜주시였으며 매개 부서의 직능과 역할에 대하여서도 하나하나 규정해주시였다.

해설을 들으며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도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기업적지도체계도, 당시의 신문자료들을 돌아보았다. 전시물들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창설은 농촌의 변화된 현실과 성숙된 요구에 맞게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농업지도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 획기적인 사변이였음을 웅변적으로 확증해주고있었다.

이어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실현하여 인민경제를 보다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시기 위하여 붉던 붉흙의 로고를 바쳐 오신 데 대한 해설을 듣고 다음호실로 참관을 이어갔다.

그곳에서 참관자들의 눈길을 끈것은 《당사업에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구현》이라는 글발이였다.

당 제4차대회이후 당사업을 더욱 개선하며 당사업의 체계와 방법을 고쳐나가는것은 변화된 환경과 급속히 발전하는 당시의 현실적인 요구였다.

이것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사업에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벽면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문헌들과 전시된 전시물들앞에서 참관자들은 당 제4차대회이후 당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수령님께서 얼마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였는가를 깊이 절감하였다.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결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상사진문헌이 모셔진 벽면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

우리 당의 주체적인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이 과연 어떻게 태여났던가.

여기에는 참으로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깃들어있었다.

력사의 교훈을 남긴 까리브해위기가 있은 직후 우리 인민앞에는 준엄한 정세가 도래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반공화국침략책동에 광분하였고 수정주의자들은 그에 동조해나섰다.

안팎의 정세를 예리하게 분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를 소집할것을 결심하시고 그에 앞서 전원회의에 제기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놓고 거듭되는 토의를 진행하시였다.

어느날 심중한 안색으로 일군들을 불러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의견을 물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경제국방병진로선만이 나라를 지키고 민족의 번영을 담보하는 길이였기에 그들은 한결같이 해야 합니다라고 대답올렸다.

순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책상을 치시였다.

이게 뭔줄 아는가? 우리 인민이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야 한단 말이요, 허리띠를!

일군들은 우리 수령님의 심중에 인민들의 생활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자리잡고있음을 알게 되였다.

회의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온 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래도 해야 한다고 위대한 수령님께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격정을 애써 누르시며 다른 일군들에게 동무들은 어떤가고 다시금 물으시였다.

회의에 참가했던 일군들모두가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주체51(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에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이 제시되였다.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이라는 전투적구호는 이렇게 태여났다.

정녕 혁명의 새로운 로선과 정책을 내놓으신 때마다 언제 한번 마음속에서 인민이라는 두 글자를 떼여놓은적이 없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참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한평생 이민위천을 과우명으로 삼으시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어려있었다.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사상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해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며 참관을 이어갔다.

글 본사기자 강 현 남
사진 정 철 훈

한점의 불꽃이 대중운동의 불길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원리를 신념으로 간직하시고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발동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봄날 경성군에 있는 아마공장(당시)을 찾으시였다.

공장에 들어서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의 생활형편부터 료해하시였다.

일군들에게 공장락아소가 어디에 있는가도 알아보시고 아이들에게 소젖을 풍족하게 공급하라고 이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 직장으로 향하시였다.

직장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자체로 만든 공기마치를 보시면서 아주 훌륭하다고, 수고했다고 하시며 로동자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공장일군으로부터 단능선반도 자체로 만들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어디 있는가고 하시며 그 기대가 있는 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기대앞에서 물러서려는 선반공에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대로 일하라고 이르시며 그의 어깨너머로 선반기의 동작을 세심히 보시고나서 이번에는 선반기앞으로 다가가 허리를 굽히시고 기대의 움직임을 자세히 들여다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 일군은 만들어놓고 보니 결함이 많다고, 한번 만들어본 경험에 기초하여 지금 만능선반기를 만들고있다고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만능선반기를 보자고 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머뭇거리지 않을수 없었다. 한것은 만능선반기를 조립하고있는 장소가 공무직장 뒤벽에 덧붙여 지어놓은 가설건물인데다가 문까지 닷아 드나들기가 여간 불편한 곳이 아니기때문이였다.

하긴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허리를 굽히시고 안으로 들어가시여 곧바로 선반기앞으로 다가가시였다.

아니, 이런 선반기도 만드는가, 실제를 어떻게 하였는가고 하시며 기쁨속에 환히 웃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미소로 하여 장내가 밝아지는것만 같았다.

한심한 건물에 어버이수령님을 모신것으로 하여 얼굴을 들기 저어하던 일군들은 수령님께서 하도 만족해하시자 어느새 어버이앞에서 자랑많은 자식의 심정이 되고말았다.

충분한 기술적토대를 갖추지 못하여 도면 한장 그릴수 없는 조건이였지만 당의 뜻을 받들고 대담하게 기능공들을 모아 빈터에 작업장을 꾸리고 시작했던 일이며 자재도 낡은것을 회수하여 쓰고 용선로도 어방없이 모자라 마음먹고 개조하여 겨리는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간 일, 조립도 남의 손을 빌린것이 아니라 기계수리공동무가 맡아하고있는 사실…

나중에 일군들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변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도 무척 감동에 겨워하시였다.

여기에 기계박사가 있다고 하시며 수리공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려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가 십여년간이나 기계수리를 하였으며 앞으로 수십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할 통이 큰 목표도 세웠다는 대답을 들어주시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으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공장을 견학하게 하여야 하겠다고, 공장에서는 견학오는 사람들에게 공작기계를 새끼친 경험을 알려주고 강습도 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공장에서 낡은 절삭기계 몇대를 가지고 자체의 힘으로 공작기계를 새끼친것은 용감하고 대담한 일이라고, 바로 이 공장이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라는 구호를 써붙일 자격이 있다고 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고가신 소중한 불꽃, 그것은 그후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의 불길로 타번지며 나라의 방방곡곡으로 퍼져갔다.

본사기자 최 유 일

후 방 사 업 은 곧 당 사 업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김일성동지는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만민이 우러르는 절세의 위인이시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어느날에 있은 일이다. 황해제철소(당시)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지에서 협의회를 소집하시였다.

회의에 참가하게 된 일군들의 마음은 저으기 긴장되여있었다.

당시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으로 나라에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여있었던것만큼 회의에서 그와 관련한 문제가 중요하게 토의되리라고 생각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이윽고 회의가 시작되였다.

이제부터 황해제철소의 후방기지건설과 후방공급문제를 가지고 협의회를 하려고 한다고, 먼저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문제부터 토론하자고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장내에 울리였다.

순간 회의참가자들은 자기 귀를 의심할 정도로 놀랐다.

조성된 정세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에서 내려오는 길로 제철소에 꾸려놓은 남새밭과 닭공장을 돌아보았는데 확실히 여기 일군들이 잘못 생각하는것이 있는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르시였다.

정세가 긴장해지고 정황이 복잡할수록 공장일군들은 응당 사람들의 생활문제부터 먼저 살펴야 한다. 목전에 아름찬 과업이 나설수록 로동자들의 생활을 먼저 돌보는것은 우리 일군들의 본분이다. 그런데 황해제철소의 일군들은 정세가 좀 긴장해졌다고 하여 이미 벌려놓았던 후방기지건설까지 다 집어던지였다.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고 여러번 강조하였는데 동무들은 당의 의도를 왜 아직도 모르고있는가. …

위대한 수령님의 절절하신 음성은 일군들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돌이켜보면 제철소로동자들의 후방공급사업을 위해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얼마나 많은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던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군들에게 로동자들의 생활을 잘 돌봐줄데 대해 강조하시고 이곳에 남새밭을 조성하여 로동자들에게 더 많은 남새를 공급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도 취해주신분이 다름아닌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로동계급을 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잘 받들지 못하고 정세가 긴장한 때 생산부터 앞세워야 한다고 하면서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중시하지 못하였으니 생각할수록 미리를 들수 없었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새밭면적을 늘이고 분수식관수체계를 더 도입할데 대한 문제와 닭공장을 빨리 꾸려 로동자들에게 닭알을 정상적으로 공급할데 대한 문제, 젖소목장을 크게 늘여 우유를 더 많이 생산공급할데 대한 문제 등 황철로동계급의 후방공급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회의를 마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황해제철소가 후방공급사업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로동계급의 생활문제는 당에서 선차적으로 관심을 돌리는 문제이므로 후방공급사업을 우선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깊은 밤 숙소로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화로 제철소일군을 찾으시고 동무들에게 과업을 주고 왔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다시 전화를 건다고 하시면서 황철의 남새공급을 담당할 협동농장들을 찍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남새밭을 잘 운영하면 황해제철소의 남새문제는 완전히 풀리게 될것이라고, 그렇게 되면 남새적정을 더는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에 떠받들리여 제철소의 후방공급사업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그후 제철소에서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이 새롭게 개선되여 일이 잘되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더없이 기뻐하시면서 이곳 일군에게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후방사업은 당사업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은 당사업이나 후방사업이 다같이 사람과의 사업, 사람을 위한 사업이기때문이다. 로동자들을 위해주는 후방사업이 곧 당사업이라는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진심으로 로동자들의 생활을 돌봐주어야 한다.

이렇듯 당사업이 철두철미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

그이께서 지니시였던 숭고한 뜻은 오늘 우리 당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의 정치에 더욱 철저히 구현되여 최후승리를 위한 장엄한 투쟁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을 더 힘차게 고무추동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수리화가 전하는 사연깊은 이야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혁명가적품모에 있어서나 인간적품모에 있어서나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해방된 이듬해 봄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안남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때에 있은 일이다.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산촌의 정경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밭갈이하는 한 농민이 눈에 뜨이자 차를 세우게 하시였다.

차에서 내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흙묻은 그의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면서 토지개혁을 하니 어떤가, 농사에서 걱정되는것은 없는가에 대하여 하나하나 물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알아뵈지 못하였지만 하도 인자하신 풍모에 끌린 농민은 《김일성장군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고 땅까지 거저 나누어주셨는데 또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소원이 있다면 김일성장군님을 한번 만나뵙고싶은 소원밖에 없습니다.》하고 진정을 토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흔연하게 웃으시더니 그래도 왜 걱정되는것이 없겠는가고 하시면서 이 지방에서 농사를 잘 짓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농민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건 에야 우리 농민들이 일년내내 뼈빠지게 일하고도 가을에 가면 몇가마니 안되는 곡식마저 왜놈들과 지주놈들에게 다 빼앗기다나니 아예 맥을 놓고 농사를 잘 짓지 않았지만 이제부터야 제땅에서 제 농사를 짓는데 부지런히 일만 하면 어기서도 농사를 잘 지을수 있다고 성수가 나서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가물이 드는데 어떻게 농사를 잘 지을수 있겠는가고 하시였다.

농민은 아무리 가문다고 하여도 제땅을 가진 이상 이제는 농사를 잘 지을수 있다고 말씀드리였다.

이때 동행한 한 일군이 농민에게 바로 저분이 김일성장군님이시라고 귀띔해주었다.

순간 농민은 너무도 당황하여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허리굽혀 절을 하려고 하는 농민을 다정히 일으켜세워주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날에는 《하늘의 조화》를 피할수 없었지만 로동자, 농민이 주인이 된 우리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하늘의 조화》를 막을수 있다고, 우리는 물에 대한 열두삼천리벌농민들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하여 청남관개공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농민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장군님, 너무 걱정마십시오. 올해에 농사를 본때있게 지어 밭동기를 사다가 명년부터는 물을 퍼올려 농사를 짓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였다.

이윽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농민과 작별인사를 나누신 후 길을 떠나시였다. 승용차가 어느 한 자그마한 다리에 이르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잠시 쉬어가자고 하시며 차에서 내리시더니 흘러내리는 시내물에 낚시대를 드리우시였다. 그 시각 장차 조국땅우에 펼칠 만년대계의 대자연개조사업을 구상하고 계시였음을 누구도 알수 없었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아무리 어려워도 관개공사를 빨리 하자고, 어디에서나 농민들은 물을 요구하고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아까 그 농민이 농사를 잘 지어 밭동기를 사다 물을 푸겠다고 한것은 매우 좋은 의견이다, 국가와 농민들이 힘을 합친다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많은 관개공사를 더 빨리 할수 있다, 큰 관개공사는 국가에서 하고 작은 관개공사는 농민들자신이 하는 운동을 널리 벌리자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큰 규모의 관개공사와 중소규모의 관개공사를 동시에 밀고나갈데 대한 현명하고 독창적인 수리화방침은 이렇게 마련되게 되였다.

본사기자 정 순 학

박 봉 주 동 지

순천시의 여러 단위 현지료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가 순천시안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받들고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으며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련판단위들에서 각종 설비와 부속품들을 원만히 보장해주어 세멘트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였다.

박봉주동지는 또한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위한 대상건설장과 순천린비료공장건설장을 돌아보면서 건설물의 속도와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며 전반적인 생산공정들을 훌륭히 꾸리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금속공업의 자립적토대를 더욱 강화하여 철강재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자

주체화실현을 위한 대상공사 빠른 속도로 진척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류동층가스발생로건설장에서

창조와 건설의 우렁찬 동음이 북방의 철의 기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힘있게 울려퍼지고있다.

발생로뿜프장과 가스승압장, 압축기 및 송풍기장의 건축공사현이어 완성!

단 2시간동안에 수십t에 달하는 드람설치에 성공!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향한 이곳 로동계급의 전진의 기상인양 전투장에는 혁신의 새 소식들이 시간을 다투며 전해지고있다.

류동층가스발생로건설장에 나래치는 드세찬 공격전의 열풍은 자립의 강철기둥을 굳건히 다져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추동해갈 이곳 로동계급의 불보다 뜨거운 심장의 열도를 느끼게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혁명적열의에 의해 류동층가스발생로건설장은 거대한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고있다.

긴 팔을 내뻗친 기중기들이 연해연방 강철구조물을 들어올리고 곳곳에서 용접불보라가 장쾌하게 쏟아져내리는 모습은 볼수록 흐뭇하다.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서라도 나라의 강철기둥을 억세게 다져나가는데서 한몫 크게 할 이들의 불같은 열정은 그대로 기적창조의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결사관철의 대오속에는 송평대보수사업소 45명의 용접공들도 있다.

어느날 시간이 다르게 키를 솟구친 가스발생로의 강철구조물조립전투는 더욱더 어려워지고있었다. 수십m의 높은 곳에서 발붙일 자리도 없는 불리한 작업환경에서의 용접전투는 대단히 어려웠다.

기능이 높은 성원들로 돌격대가 무어졌지만 이들이라고 하여 특별한 경험은 별로 없었다. 오직 당의 부름앞에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대답해야 한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만장약하였기에 그들은 전화의 나날 돌격로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면 화선용사들처럼 낮에 밤을 이어 결사적인 전투를 벌리였다.

로안에 차오른 용접가스로 하여 작업환경도 매우 불리하였다. 더우기 땔몸도 가누기 힘든 허공에서 용접전투를 벌린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전투로 새날을 맞고보내는 이들의 두눈은 충혈지고 온몸은 땀으로 잦아드는것만 같았다. 그러나 누구도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않았다.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그 관철을 위해 결사의 정신을 발휘해가는 로동계급이였기에 한사람이 두몫, 세몫씩 맡아해제끼며 불리한 조건에서도 용접작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혁신과 위훈은 련이어 창조되였다. 기존관념과 기존공식을 타파하고 현존기중기능력으로는 들어올릴수 없다던 수십t에 달하는 강철구조물을 단 2시간만에 수십m의 고공으로 들어올려 1mm의 편차도 없이 설치하는데 성공하였고 설비장치물조립도 짧은 기간에 외딱딱 해제끼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어찌 이들뿐이랴. 류동층가스발생로건설에 동원된 김철로동계급의 불같은 열의에 떠받들려 가스승압장과 압축기 및 송풍기장 등의 창문달기와 지붕씌우기가 전부 끝나고 완공의 날이 다가오고있다.

하루가 다르게 쭉쭉 키를 솟구치며 일떠서는 세척탑을 비롯한 거대한 강철구조물조립공사장에서도 당의 부름에 떨쳐나선 이곳 로동계급의 결사관철의 정신을 그대로 엿볼수 있다.

가스발생로장, 뽐프장, 원료장제진계통 등 발생로건설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로동계급도 김철의 로동계급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나라의 강철기둥을 다져나가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이들은 장치물제작에 필요한 강재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수백t에 달하는 철강재를 낡은 강철구조물에서 회수리용함으로써 장치물제작을 제기일보다 앞당겨 끝내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하루를 열흘, 백날맞잡이로 불같이 살며 투쟁하는 이곳 로동계급은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철근가공과 철판절단, 용접 등을 앞세워 방대한 량의 강철구조물제작을 빠른 기간에 끝낼수 있는 확고한 담보도 마련하였다. 또한 여러 단위의 기술집단과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탐구도입하고 건설대상들에 따르는 설계를 선행시켜 공사기일을 앞당길수 있는 방도도 찾아내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파견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도 류동층가스발생로건설에서 단단히 한몫하고있다. 주체화실현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있는 이들은 이번에 천여대에 달하는 설계를 현실적조건에 맞게 완성함으로써 많은 자재와 부속품을 절약할수 있는것은 물론 공사속도를 높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새 기적창조의 주인공들은 이들만이 아니다.

크고작은 제관품들을 싣고 연방 들어서는 대형화물자동차운전사들도 있으며 김철이 자랑하는 녀성파외지원대와 후방부문 종업원들,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름모를 사람들도 있다.

석탄가스에 의한 압연강재생산체계를 기어이 확립할 이곳 로동계급과 온 나라 인민의 불같은 열의에 떠받들려 공사는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만족과 답보를 모르는 투쟁본때

철의 기지 황철이 끓는다. 어제는 무연알탄생산공정이 일떠서고 오늘은 주체철 최고생산실적을 기록하는 자랑찬 소식이 전해지는 속에 금속재료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또 하나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새로운 물유리생산공정건설 완공!

저품위망간토선광에서 분산제로 쓰이는 물유리생산공정을 우리식으로 새롭게 일떠세움으로써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질좋은 강철을 생산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주체적인 제철, 제강기술을 더욱 완성하고 철생산능력을 확장하며 금속재료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인민경제의 철강재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철의 기지 황철에 확립된 물유리생산공정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기어이 완성하려는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불같은 투쟁열의가 낳은 창조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련합기업소일군들은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금속재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그중에서도 수입에 의존하던 물유리를 자체로 생산함데 대한 문제가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였다. 하지만 물유리생산공정을 자체의 힘으로 건설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파악이 부족한 새 설비제작을 위해 설계도 자체로 해야 했고 철판을 비롯한 많은 자재도 해결해야 하였다.

그렇다고 뒤전에 밀어놓을수 없는 일이였다. 일군들은 금속재료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당의 사상과 의도를 기술자, 로동자들에게 다시금 깊이 인식시키면서 공정건설에로 불러일으켰다.

특히 기술자, 기능공들의 사업조건을 잘 보장해주고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주며 기능공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산악같이 일떠선 황철로동계급의 투쟁기세에 의해 공정건설은 립체적으로 추진되였다.

설비과 부원인 리태일동무는 고심어린 탐구를 기울여 필요한 공정설계를 자체로 완성하였다. 즉시 설계에 따라 용융로와 분해기를 세우기 위한 전투에 일제히 진입하였다.

앞을 막아나서는 애로와 난관도 있었다.

카암용액로의 정동장치제작에서 여러가지 난문제가 제기되였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할 때마다 이들의 가슴속에 고개쳐진것은 동요가 아니라 내세운 목표를 반드시 자기 힘으로 점령해야 한다는 투철한 각오였다.

이런 사상적각오를 안고 모두가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였다.

이렇게 되여 한달 남짓한 기간에 물유리생산공정이 새롭게 꾸려지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황철의 로동계급은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을 떨치며 아르곤생산공정확립을 위한 압축기조립공사도 훌륭히 완수하였다. 담보를 모르는 황철의 발걸음이다.

황철의 투쟁본때, 이것이 내 조국을 억년 드놀지 않는 강철기둥으로 굳건히 받들어갈 영웅적 집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기질이며 기풍인것이다.

예비는 찾을수록 늘어난다

흥남전극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것을 요구하고있다.

하다면 일군들은 이 거창한 진군길에서 어떤 작전도를 펼치고 자기 단위를 이끌어야 하는가.

흥남전극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그 몇가지 대답을 찾아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최근 공장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능력이 큰 야외흑연건조장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전개되여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이와 함께 오래동안 멎어있던 낡은 전극가공설비들을 개조하여 전극가공을 규격별로 전문화할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있다.

물론 지금의 생산조건은 불리하다. 하지만 공장일군들의 작전에 따라 진행되고있는 이러한 사업들은 단위의 자강력을 증대시키고 전극생산을 활성화할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고있다.

야외흑연건조장건설을 놓고보자.

황철과 강선을 비롯한 여러 금속공장들에서 전극수요가 높아지고있는 현실은 공장에서 전극의 생산성을 보다 끌어올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로부터 일군들이 중시한 문제의 하나는 전극생산의 선행공정인 흑연건조능력을 높이는것이였다.

현재 공장에서 리용하고있는 전기에 의한 흑연건조방법에는 일련의 부족점이 있었다. 흑연을 가열, 건조시키는데 여러날이 걸리고 그것을 식혀서 리용하자고 하여도 또 이틀이라는 시간이 소비되였던것이다. 흑연건조로운영과정에 소비되는 전기 또한 적지 않았다.

전기를 쓰지 않으면서도 흑연건조시간을 종전보다 단축할 방법이 없겠는가.

방도를 모색하던 공장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은 흑연을 야외조건에서 자연건조하는 방법을 받아들일것을 발기하였다.

자연조건에서 흑연을 건조하면 기술규정의 요구를 지킬수 있겠는가고 머리를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일군들은 막대한 전기를 절약하여 나라에도 보탬을 주고 전극의 생산성도 높일수 있는 이 길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일군들은 무엇보다도 야외흑연건조방법의 우월성을 일군들과 로동자들속에 깊이 인식시키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원료준비직장에 일정한 크기의 야외건조장을 시험적으로 꾸려놓고 그곳 종업원들이 며칠동안 건조시험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시험과정을 통하여 로동자들은 전기를 쓰지 않고도 건조시간을 훨씬 단축하고 흑연의 수분함량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인식하게 되였다.

책임일군들은 새 건조방법의 우월성을 생산자대중에게 인식시키는것과 함께 자신들이 직접 어느 한 단위에 꾸려진 야외건조장을 돌아보면서 공장실정에 맞는 건조장의 규모도 확정하였다.

이렇게 되여 지난 2월부터 공장자체의 힘으로 능력이 큰 야외흑연건조장을 꾸리는 전투가 시작되게 되였다. 이 건조장이 완공되면 막대한 전기를 절약하는것은 물론 전극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된다니 얼마나 좋은가.

낡은 전극가공설비들을 개조하여 전극가공을 규격별로 전문화할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있는 사실을 놓고도 자력갱생정신으로 단위의 자강력을 증대시켜나가는 일군들의 사업기풍을 엿볼수 있다.

공장에서는 전극가공에 여러대의 CNC선반을 리용하고있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전극가공의 규격별전문화를 실현할수 없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각종 규격의 전극생산이 동시에 제기될때면 설비들에 많은 부하가 걸리고 시간도 지연되는 등 가공에서 적지 않은 지장을 받군 하였다.

공장조건에서 가공설비들을 새로 마련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일군들은 가공직장에 벗어있는 설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대담하게 살릴 결심을 하고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켰다.

설비개조에서 제일 걸린것은 부속품보장이였다. 책임일군들은 이 문제를 몇몇 자재일군들에게만 맡기지 않았다. 공장의 모든 일군들이 중요부속품들을 하나씩 맡아 해결하도록 하였고 자신들부터가 앞장에 섰다. 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달리니 공무보수직장의 로동자들도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서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멎어있던 전극가공용선반이 새롭게 개조되여 전극가공을 규격별로 전문화하는데서 큰결음을 내짚었다. 지금 공장에서는 또 한대의 낡은 전극가공용선반을 개조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벌어져 마감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일군들부터 자력갱생정신을 만장약하고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로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킬때 생산활성화의 돌파구는 열리기마련이다.

이미 마련된 생산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는 흥남전극공장 일군들의 사업기풍은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본받을만 하다.

합금철생산공정의 기술개건을 힘있게

부령합금철공장에서

부령합금철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합금철생산공정의 기술개건을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속공업부문에서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철생산원가를 낮추고 주체화된 생산공정들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철강재를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질좋은 합금철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여 금속재료의 질제고에서 한몫 단단히 할 목표를 내세우고 완강한 공격전을 벌려나가고있다.

당, 행정일군들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생산공정의 기술개건사업을 적극 추동하고있다.

공장참모부에서는 여러가지 종류의 합금철을 더 많이, 더 질좋게 생산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를 설비개조에서 찾고 한개 대상씩 모가 나게 해제끼고있다. 특히 합금철로들의 기술개건을 중심과제로 정하고 설비, 자재보장을 앞세워 높은 공사속도가 기록되게 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짧은 기간에 15호, 16호합금철로들의 기술개건보수를 와닥닥 해제낀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얼마전 18호합금철로의 기술개건을 끝내고 불을 지피여 질좋은 규소철생산을 높이고있다.

공장의 로동자들은 현행생산을 내밀면서 한사람이 두몫, 세몫의 일감을 맡아 생산공정들의 기술개건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만장약한 로동자들은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해결하고 기술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걸린 문제들을 풀어나가고있다.

합금철로의 료제작업과 내화물축조공사 등을 끝낸 이들은 전력계통공사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쳐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전극승강장치와 먼지잡이계통의 개건보수와 합금철로들의 기술개건, 원료공급계통의 기술개건전투를 립체적으로 벌리고있다.

공무보수직장의 로동자들은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맡아들이고 설비들을 만가동하여 합금철생산공정의 기술개건에 필요한 장치물들과 부속품들을 원만히 보장하고있다.

원료직장의 로동자들은 분쇄공정에 새형의 혼합기를 제작설치하여 생산성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기술개건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 금속공업발전을 힘있게 추동할 불같은 일념안고 기술개건사업에 떨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9월의 대축전장을 향한 오늘의 총진군길에 뚜렷한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추켜든 이들의 힘찬 투쟁으로 성과는 나날이 확대되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11일부터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함께 남조선전역에서 우리에 대한 공중선제타격과 제공권장악을 목적으로 대규모의 《2018 맥스 선더》련합공중전투훈련을 벌려놓고있다.

이번 훈련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의 주관하에 미군의 《B-52》전략핵폭격기와 《F-22랩터》스텔스전투기를 포함한 100여대의 각종 전투기들이 동원되여 25일까지 진행된다.

내외여론들은 이번 훈련이 력대 최대규모라고 하면서 이는 우리에 대한 《최고의 압박과 제재》를 계속 가하려는 미국과 남조선의 변함없는 립장의 반영이라고 평하고있다.

남조선전역에서 우리를 겨냥하여 벌어지고있는 이번 훈련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며 좋게 발전하는 조선반도정세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도발이다.

북과 남은 이번 판문점선언에서 새로운 평화시대가 열리였음을 엄숙히 천명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갈데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이를 미국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과 미국은 력사적인 4.27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련합공중훈련을 벌려놓음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준 평화애호적인 모든 노력과 선의에 무례무도한 도발로 대답해나섰으며 선언리행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에 커다란 우려와 실망을 안겨주고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주동적이며 아량있는 노력과 조치에 의해 마련된 북남관계개선과 조미대화국면이 이번 전쟁연습과 같은 불장난소동을 때도 시도 없이 벌려놓아도 된다는 면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특히 남조선당국은 우리와 함께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노력하자고 약속하고서도 그에 배치되는 온당치 못한 행위에 배탈리고있으며 천하의 인간쓰레기들까지 《국회》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판문점선언을 비방중상하는 놀음도 버젓이 감행하게 방치해놓고있다.

선의를 베푸는데도 정도가 있고 기회를 주는데도 한계가 있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은 그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써는 리행될수 없으며 쌍방이 그를 위한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힘을 모아 조성해나갈 때 비로소 좋은 결실로 이어질수 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무분별한 북침전쟁소동과 대결란동이 벌어지는 험악한 정세하에서 16일로 예견된 북남고위급회담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북남고위급회담이 중단되게 되고 첫걸음을 뗀 북남관계에 난관과 장애가 조성된것은 전적으로 제정신이 없이 놀아대는 남조선당국에 그 책임이 있다.

미국도 남조선당국과 함께 벌리고있는 도발적인 군사적소동국면을 놓고 일정에 오른 조미수뇌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차후태도를 예리하게 지켜볼것이다.

주체107(2018)년 5월 16일
평 양

뚜렷한 목표를 내걸고

화평림산사업소에서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더 높은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불타는 열의를 안고 떨쳐나선 화평림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통나무를 보내주기 위한 힘찬 돌격전을 벌려 지난 3월말까지 년간 통나무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사업소일군들은 올해 통나무생산준비에 앞서 지난해생산성과를 분석해보았다.

생산조건이 유리한 겨울철기간에 년간 통나무생산량의 70%이상을 수행하자면 목표를 높이 세우고 일판을 통이 크게 벌려야 하였다.

일군들은 새로운 결심을 안고 올해 자기들앞에 맡겨진 통나무생산계획을 기한전에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였다. 이때 일군들이 잘한것은 생산조건보장사업을 앞세운것이다.

사업소는 다른 림산사업소들에 비해 생산조건이 불리하다. 여러 작업소들이 타고앉은 산들은 해발 천수백m나 된다.

이로부터 일군들은 통나무생산계획을 면밀하게 세운데 기초하여 조건보장사업을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작업소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이어 부족되는 설비,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과 함께 기술적지도를 안받침하였다.

또한 겨울철에 로동자들이 생활하게 될 산지함숙들에 대한 보수를 진행하고 축전지, 태양빛전지판 등을 갖추어주는것과 함께 솜신발, 솜옷, 장갑 등 로동보호물자들을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결과 통나무생산성과가 확대되였다.

이곳 일군들의 전투작전에서 주목되는 다른 한가지는 통나무생산공정에서 대담하게 사이나르기공정을 없애고 채벌장가까이에 마감나르기공정을 접근시켜 적은 로력과 설비를 가지고 실리를 보장하게 한것이다.

작업소들에서 채벌장가까이에 나무리들을 정하고 그곳까지 운재차들이 올라올수 있게 길을 내는 준비작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토량을 처리하고 암반을 까내면서 운재길을 내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일군들은 로동자들속으로 들어가 앞채를 메고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고무추동하면서 현장에서 걸린 문제를 풀어나갔다.

일군들의 완강한 실천력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채벌장가까이에 나무리들이 새로 생겨났으며 사이나르기공정을 맡았던 로력이 채벌작업에 돌려져 통나무생산에서 성과가 이룩되였다.

뿐만아니라 사이나르기를 맡았던 뜨락또르들이 마감나르기를 하게 하였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산지웃단에 통나무생산과 마감나르기를 겨울철에 동시에 내밀었다.

하여 사업소에서는 올해 맡겨진 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과학적인 작전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높이 세운 목표를 실현해나가는 이곳 일군들의 일본새는 본받을만 하다.

특파기자

축산에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알이 차례지게 하자

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과학적인 작전과 지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일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맡은 사업을 혁명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서포닭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해에 년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올해에도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련속공격전을 들이대고있다.

이 공장이라고 하여 생산조건이 다른 단위보다 더 나은것은 아니다.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나가고있는 성과의 밑바탕에는 이곳 일군들의 혁신적인 일본새가 깔려있다.

과학적으로 짜고든 생산조직

아무리 조건이 불리해도 일군들이 잠도리를 단단히 하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과학적으로 짜고들면 혁신이 일어나기마련이다.

축산물생산계획을 수행하는데서 제일 걸린것은 먹이문제였다. 계획수행에 필요한 먹이의 많은 몫을 자체로 해결해야 하였기때문이다. 이 문제를 놓고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최승일, 김성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생산과제는 죽으나사나 무조건 수행하여야 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일군들은 떨쳐나섰다.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한 실속있는 방도가 따라서야 생산자재중이 자신심과 높은 생산의욕을 가지고 떨쳐나 증산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수 있다. 이로부터 일군들은 내부예비동원과 절약의 두가지 방도를 찾아쥐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우선 부족되는 먹이문제를 일군들이 해결할것을 결심하고 분담을 하였다. 지배인이 앞장섰다. 당정책의 운명이 자기들의 어깨우에 놓여있다는 자각은 모두를 분발시켰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많은 량의 먹이가 해결되게 되였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할수 없었다.

일군들은 먹이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생산조직도 면밀히 하였다.

먹이공급을 과학적으로 짜고든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들은 호동별로 먹이공급량을 규정해주는데 주목을 돌렸다. 즉 성장단계별, 알낳이률에 따르는 먹이처방과 공급계획을 작성하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였다. 필요이상의 먹이가 소비되거나 또는 기준량보다 적게 공급될수 있기때문이였다.

먹이리용의 과학화수준을 높인다면 얼마든지 축산물생산을 활기있게 내밀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이들은 필요한 조직사업을 따라세웠다. 먹이생산료에 따라 강냉이, 콩깨묵, 쌀겨, 첨가제 등의 배합비률이 각이한 먹이가 생산되였다. 그리고 이 배합먹이를 먹이공급표에 지적된대로 정확히 호동들에 보장해주도록 하였다.

먹이문제가 해결되는데 맞게 일군들은 생산지휘를 짜고들었다. 그들은 먼저 생산현장에 나가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로력편성과 과제분담, 기술 및 생산공정조직 등을 합리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생산과정에 제기될 문제들을 예견성있게 풀어나갔다.

결국 로력과 설비를 비롯한 현존능력에서는 딸라진것이 없지만 축산물생산에서 비약이 일어날수 있었다.

공장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들어와 많은 먹이를 절약하면서도 종전에 비해 알낳이률을 훨씬 더 높이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기술혁신은 증산의 열쇠

오늘의 현실은 기술혁신에서도 일군들이 앞장에 설것을 요구하고있다. 생산장성의 예비는 과학기술에 있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일군들부터 기술혁신의 앞장에 선 결과 모든 일이 잘되고 나날이 흥하는 공장으로 변모되고있다.

알낳이닭호동의 창문조절장치를 창안도입한 사실을 놓고보자.

호동에는 창문들이 수십개나 되는데 그나마 사람의 키를 훨씬 넘는 높이에 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공기갈이를 위해 창문여는 각도를 한번 조절하려면 시간이 퍽그나 걸렸다.

소홀히 여길 일이 아니였다. 품이 많이 드는것은 물론 창문마다 여는 각도가 차이날수 있었다. 더우기 날씨변화에 맞게 신속한 대책을 세울수 없어 알낳이률을 높이는데 지장을 줄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조절장치를 제작하여 이 작업에 들던 품을 훨씬 줄인것도, 산성전해수로 어느 한 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수 있는 방법을 착상도입한것도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낳은 결실이다.

이곳 일군들의 경험은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일군들의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가 안받침될 때 어려운 조건에서도 증산의 돌파구를 열어제낄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방 영 진

안주돼지공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축산을 하는 모든 단위들에서 방역시설들을 잘 갖추어놓고 집짐승들에 대한 검진과 우리소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축산에서는 방역이자 곧 생산이다.

이것을 깊이 명심한 안주돼지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수의방역사업에 힘을 넣어 축산물증산의 담보들을 마련해가고있다.

이들이 자체의 힘으로 제작하여 리용하고있는 오존소독기를 두고서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수감장치, 오존발생기, 송풍장치 등으로 이루어진 이 소독기는 구조와 동작원리가 간단하여 이곳 종업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오존발생기에서 발생된 오존은 방역초소로 송풍되여 멸균작용을 하게 된다.

사람들이 방역초소를 통과할 때 수감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통작하게 되여있는데 필요에 따라 동작시간을 다르게 설정할수 있다.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이 방역초소에서 손소독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설정해놓고 리용하고 있다.

비록 요란한 발명품은 아니지만 이 오존소독기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자강력이 낳은 소중한 창조물이라고 할수 있다.

최근 및해사이에 도당위원회의 지도와 방조속에 건물들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먹이첨가제생산공정을 비롯한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어놓은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축산물생산을 본때있게 밀고나갈 목표를 세우고 더욱 분발해나섰다.

그때 일군들이 제일 중시한 문제의 하나가 철저한 수의방역대책을 세우는 사업이였다.

이 문제를 놓고 사색과 연구를 깊이하면 공장의 일군들은 오존소독기를 자체로 제작할 결심을 가지게 되였다.

당시 공장에는 오존소독기를 제작해본 경험을 가진 기술자나 종업원은 한명도 없었다. 하기에 일부 사람들이 공장의 형편에서 자체로 왜 만들어낼수 있겠는가고 미리를 기웃거린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일군들은 축산부문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방역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다시금 깊이 새기며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그 분야에 조예가 깊은 청년들로 기술혁신조가 조직되고 그들의 사업보장을 위한 면밀한 대책이 세워졌다. 경험이 부족하다나니 수감장치의 여러 요소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난문제들이 선뜻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때없이 제작현장으로 찾아와 걸린 문제도 함께 토의하고 필요한 자재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주며 적극 떠밀어주는 일군들의 모습에서 힘을 얻은 기술혁신조성원들은 더욱 분발해나섰다. 결과 오존소독기는 짧은 기간에 공장의 실정에 맞으면서도 실리있게 제작완성되여 수의방역사업에서 큰 은을 낼수 있게 되였다.

지금 공장으로는 축산부문의 많은 단위들에서 이들의 제작경험을 배우기 위하여 찾아오고있다.

오존소독기제작과정을 통하여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투쟁한다면 얼마든지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축산물생산에서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해나갈수 있다는 신심을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특히 한개 단위를 책임진 일군들이 새 기술도입의 선구자가 되여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나가는 여기에 생산장성의 지름길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축산물증산의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해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박 영 진

실리있는 오존소독기를 제작리용

수의방역사업에서 큰 전진을

천리마구역수의방역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의방역사업을 잘하여야 집짐승의 페사률을 낮추고 축산물생산을 안전하게 할수 있습니다.》

수의방역사업을 잘하는 단위로 소문이 자자한 천리마구역수의방역소에서는 집짐승질병예방 및 치료사업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수의방역소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부림소영양회복제주사약과 토끼비루스성출혈병예방약을 비롯한 여러가지의 수의약품들을 생산하여 수의방역사업에 리용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 당의 축산정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고있는 박춘옥소장과 교정환당세포위원장을 비롯한 이곳 일군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이룩된것이다.

부림소영양회복제주사약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겨울을 난 부림소의 영양상태를 빨리 회복시키는것은 봄철영농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이로부터 일군들은 셀렌, 종합비타민제 등이 포함되여있는 부림소영양회복제주사약을 만들어 부림소들에게 주사를 놓아주기로 하였다.

이 사업은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와 많은 자금을 요구하는 헐치 않은 일이였다.

그러나 수의방역소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해마다 이 주사약을 만들어 리용해왔으며 그에 대한 평가도 대단히 좋았다.

문제는 올해 전기사정이 긴장하고 일부 원자재가 부족한것이였다. 하지만 지난 시기의 투쟁과정을 통하여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진리를 뼈에 새긴 일군들이기에 배심은 든든하였다.

소장부터 부족되는 원자재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였다. 긴장한 전기사정으로 온도보장을 제대로 못하여 주사약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럴수록 일군들은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갔다.

결과 높이 세운 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수 있었다. 수의방역소에서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로도당주사약도 만들어 부림소의 영양회복에 적극 리용하였다. 이것은 그대로 구역적인 봄철영농전투성과로 이어졌다.

일군들은 자체의 힘으로 2만마리분의 토끼비루스성출혈병예방약도 만들어 토끼를 기르는 구역안의 농장들과 기관, 기업소, 학교 등 여러곳에 나가 예방접종을 진행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수의방역소에서는 주변에서 나는 약초를 가지고 10가지의 새 고려수의약품들을 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사실 구역안의 산들에는 집짐승질병치료에 좋은 약초들이 많았다.

이런 고려수의약품생산원천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려는것이 일군들의 립장이였다. 그들은 주저없이 새 고려수의약품개발전투에 뛰여들었다.

피타는 탐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끝끝내 새 고려수의약품들을 개발할수 있었다.

이곳 일군들은 지금 여러 단위들에서 만든 부림소의 키생충병을 막을수 있는 새로운 구충약들의 효능을 확인하기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벌려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건강한 전투를 벌려 일반수의약품생산실을 다시 꾸리였으며 능력이 큰 고려수의약품생산기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당의 축산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 이들의 앞으로의 투쟁성과가 기대된다.

본사기자 황 철 민

축산으로 흥하는 마을

은천군 량담농장 제11작업반에서

우리는 초급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지방의 특성에 맞으면서도 주변풍치에 잘 어울리게 건설되여있는 작업반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먼저 찾은 비육분조는 전문축산기지들에 못지 않은 그른한 토대를 갖추고있었다. 규모있게 들어앉은 돼지우리들에는 살찐 돼지들이, 가금사에는 닭, 게사니들이 욱실거리고있었다.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끈것은 ㄷ자형으로 건설된 돼지호동들의 가운데 있는 퇴적장이였다. 여기서 한해에 수천톤의 질좋은 거름이 생산되여 포전으로 나간다고 한다.

비육분조로 들어가는 길옆의 양어장과 콘단백풀서식장에서 앞으로 많은 물고기와 집짐승먹이로 리용할 콘단백풀을 생산하는 흐뭇한 광경이 펼쳐질것이라고 비육분조장은 긍지높이 말하였다.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감탄을 금치 못해한다는 이야기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였다.

먹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있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동행한 초급일군은 당의 뜻대로 집짐승기르기에 풀을 많이 리용하고 있다고 하는것이였다.

그는 물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사양관리와 수의방역을 잘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한데 대해서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사실 이곳은 물원천이 부족하여 축산을 대대적으로 내미는데서 일정한 지장을 받다나니 수감장치의 여러 요소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난문제들이 선뜻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때없이 제작현장으로 찾아와 걸린 문제도 함께 토의하고 필요한 자재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주며 적극 떠밀어주는 일군들의 모습에서 힘을 얻은 기술혁신조성원들은 더욱 분발해나섰다. 결과 오존소독기는 짧은 기간에 공장의 실정에 맞으면서도 실리있게 제작완성되여 수의방역사업에서 큰 은을 낼수 있게 되였다.

지금 공장으로는 축산부문의 많은 단위들에서 이들의 제작경험을 배우기 위하여 찾아오고있다.

오존소독기제작과정을 통하여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투쟁한다면 얼마든지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축산물생산에서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해나갈수 있다는 신심을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특히 한개 단위를 책임진 일군들이 새 기술도입의 선구자가 되여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나가는 여기에 생산장성의 지름길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축산물증산의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해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박 영 진

당의 축산정책을 철저히 관철할 일념안고 사양관리를 잘해가고있다.
—대흥단군에서— 본사기자 리 진 명 찍음

우리는 얼마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은천군 량담농장 제11작업반을 찾았다.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긍지를 가슴에 안고 이곳 작업반초급일군들과 작업반원들은 당의 뜻대로 축산을 일관하게 내밀어 특특히 떠올 보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축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전군중적으로 힘있게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감탄을 금치 못해한다는 이야기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였다.

먹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있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동행한 초급일군은 당의 뜻대로 집짐승기르기에 풀을 많이 리용하고 있다고 하는것이였다.

그는 물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사양관리와 수의방역을 잘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한데 대해서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사실 이곳은 물원천이 부족하여 축산을 대대적으로 내미는데서 일정한 지장을 받다나니 수감장치의 여러 요소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난문제들이 선뜻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때없이 제작현장으로 찾아와 걸린 문제도 함께 토의하고 필요한 자재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주며 적극 떠밀어주는 일군들의 모습에서 힘을 얻은 기술혁신조성원들은 더욱 분발해나섰다. 결과 오존소독기는 짧은 기간에 공장의 실정에 맞으면서도 실리있게 제작완성되여 수의방역사업에서 큰 은을 낼수 있게 되였다.

지금 공장으로는 축산부문의 많은 단위들에서 이들의 제작경험을 배우기 위하여 찾아오고있다.

오존소독기제작과정을 통하여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투쟁한다면 얼마든지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축산물생산에서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해나갈수 있다는 신심을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특히 한개 단위를 책임진 일군들이 새 기술도입의 선구자가 되여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나가는 여기에 생산장성의 지름길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축산물증산의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해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박 영 진

태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 페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6돐을 맞으며 지난 4월 6일에 개막된 태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가 페막되였다.

《주체산업미술발전의 일대전성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전시회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우리 산업미술의 면모를 보여주는 1 500여점의 각종 도안들과 제품들, 모형, 동영상자료들이 출품되였다.

전국의 산업미술창작가, 교원, 연구사, 학생, 애호가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을 모은 전시회는 나라의 산업미술을 최단기간내에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고 산업미술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더욱 높이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산업미술을 주체적립장에서 창조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우리 인민들의 기호에 맞으면서도 현대적미감을 잘 살린 《〈충성〉호프락또르도안》, 《〈락원〉삼차도안》, 《에드등상표 및 포장도안》, 《아동놀이장형성안》을 비롯한 작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페막식이 15일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에서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일군들, 창작가, 교원, 연구사, 학생, 애호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페막식에서는 전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창작가들에게 상장과 메달이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페막사를 내각부총리 리주오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들이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 우리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시대정신을 반영한 명도안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주체적산업미술의 발전면모를 힘있게 과시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국용접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 개막

전국용접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개막되였다.

개막식이 15일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진행되였다.

국가과학원 용접연구소,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평양철도종합대학을 비롯한 수십개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 등이 참가한 이번 발표회 및 전시회에는 70여건의 가치있는 론문들과 전시품들이 제출되였다.

참가자들은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고 용접부문에서 두뇌전, 실력전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이룩한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와 경험들을 반영한 연구론문들과 전시품들을 내놓았다.

그가운데는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구들에서 제기되는 용접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고 용접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한층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한 《용제를 리용한 철근맞댄용접》, 《질화합금철을 리용한 내마모용착재료의 발전추세와 응용》, 《수력발전소압력철관로용접봉의 개발》, 《동—강철이종금속접합공정수립의 최량화》, 《철도차바퀴력용제자동용착기술공정》을 비롯한 론문들이 있다.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밑에 교육, 과학연구기관, 생산단위들에서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용접설비와 재료, 구조물생산공정확립을 위해 새롭게 창안제작한 《전호길이측정장치》, 《전기슬라크압력용접용비용해식용제》, 《2인용전류안정교류용접 및 AI선맞댐기》, 《전정강을 리용한 교류용접봉》, 《플루러결합X선결함탐지기》, 《무니켈랭간주철용접봉》 등의 전시품들도 있다.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발표회 및 전시회에서는 《새로운 전기슬라크압력용접방법과 그 응용》, 《네마모용착과 그 응용에 대하여》 등 제목의 새 기술강의가 있게 되며 보여주기사업도 진행되게 된다.

로씨야련방공산당 아무르주지부위원회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로씨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아무르주지부위원회 제1비서인 로만 표뜨르보를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공산당 아무르주지부위원회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유서깊은 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나라의 해방과 부강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돌아보았다.

단장은 만경대를 찾을 때마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금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대표단은 또한 주체사상탑과 조선혁명박물관, 류원신발공장, 해방탑 등을 참관하였다.

백수십점의 미술작품 창작

중앙미술창작사에서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높이 받들고 혁명적인 총공세, 경제건설대진군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을 위훈창조에로 고무추동하는 작품창작전투를 벌리고있다.

풍화국창건 일흔돐을 높은 명작창작성과로 빛내일 앙양된 열의를 안고 붓을 달려온 이곳 미술가들은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백수십점의 미술작품을 내놓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한 선전화작품창작에 커다란 노력을 기울여온 미술가들은 《경제건설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자!》,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가 은을 낼수 있게 석탄생산에서 혁신을!》 등 힘있고 호소성이 강한 선전화들을 내놓아 경제강국건설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북돋아주었다.

우리 인민의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해가는 창작가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수산리계급교양관에 전시할 반경화 《인간백정무리가 짓밟은 원한의 땅》이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였으며 조선화 《녀성중대의 첫 승리》, 《조선의 장한 딸들》과 같은 풀위있는 작품들도 나오게 되였다.

미술가들은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등 대고조전투로 들끓는 생산현장들에서 여러차례의 직관경제선동을 벌려 로동계급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소보를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이들은 만리마속도로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벅찬 현실과 인민의 행복한 모습을 감동깊게 형상한 《무쇠철마의 동음》, 《만리마기수》, 《행복의 웃음소리》 등의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지자기폭풍에 대한 자료

2018년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자기폭풍이 예견되는 날은 다음과 같다.

5월 17일:활성이 중간정도인 지자기폭풍
18일에는 지자기권의 섭동작용이 있을수 있다.

인디아외무성대표단 도착

비제이 꾸마르 싱 대표단을 위하여 연회를 국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인디아외무성대표단이 15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외무성 무상 최희철동지와 오를 말하리 고뜨스르베주조 인디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맞이하였다.

이날 우리 나라 외무성은 마련하였다.

이딸리아—조선친선의회 그루빠위원장일행 도착

안또니오 라찌 이딸리아—조선친선의회 그루빠 위원장과 일행이 15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언제나 앞채를 메고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 순결한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는 미더운 초급일군들속에는 단천시 장내협동농장 독립분조 분조장 김영남동무도 있다.

분조장사업을 시작한지 몇해밖에 되지 않지만 분조를 해마다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단위로 자랑떨치게 하고있다.

여기에는 당의 농업혁명방침관철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는 김영남동무의 헌신적노력이 슴배여있다.

그는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면서 많은 거름원천들을 찾아내여 여러 정보의 모래땅과 랭습지들을 옥답으로 전구는데 이바지하였다.

분조에서는 과학기술학습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분조원들이 영농공정법에 따르는 주체농법의 요구를 환히 알고 농사일에 정통하도록 하고있다.

그는 분조원들을 발동하여 분조농기구창고를 비롯한 건물들을 번듯하게 꾸려놓고 무림소마리수도 늘여 농산작업에 적극 리용하게 하고있다.

로농통신원 원 기 연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안태두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15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당의 교육정책을 충직하게 받들어갈 불같은 열의안고

교육위원회 일군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가 진행된 때로부터 20여일이 지나갔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당의 전략적구호가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승리에 대한 보다 큰 확희와 함께 새겨지던 그날부터 사색과 탐구로 낮과 밤을 이어가는 사람들속에는 교육위원회의 일군들도 있다.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과학교육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어깨우에 얼마나 무거운 임무가 지워져있는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였다.

자기들이 오늘의 하루하루를 열흘, 백날맞잡이로 일해야 교육강국, 인재강국의 래일이 그만큼 앞당겨진다는 자각을 안고 일군들은 밤늦도록 집체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목표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세워나갔다.

대학과 각급 학교들의 교원들속에서 자질향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사업, 교원양성부문 대학들의 교원진영을 우선적으로 꾸려주기 위한 사업, 평양교원대학에서 창조된 여러가지 우월한 교수방법들을 전국에 도입일반화하며 새로운 교육형식과 교육방법을 부단히 창조하고 적용하기 위한 사업, 모든 시, 군들에서 진행되는 본보기학교건설을 년차별로 강하게 추진하고 수많은 대학들의 교사, 기숙사, 도서관, 체육관건설을 완강하게 내밀어 공화국창건 70돐까지 완공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 교육단위들이 교원들속에서 창조된 우수한 교육방법, 교육부문 성과와 경험, 현대교육과학기술자료 등을 공유하도록 하여 본위주의를 철저히 없애도록 하기 위한 사업…

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해 세운 방대한 계획앞에서 교육위원회의 책임일군은 생각이 깊어갔다.

종전의 사업방법을 가지고서는 아름찬 과업들을 수행할수 없었던것이다.

위원회의 일군들이 당과 국가앞에 나라의 교육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전투적으로 일에 달라붙도록 해야 했다.

(우리 일군들이 지역별로 맡고 내려가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불도가니마냥 부글부글 끓어번지도록 하자.)

이렇게 되여 당조직의 지도밑에 위원회의 일군들이 각 도들을 돌면서 해당 지역의 교육사업에서 제기되고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면서 교육부문의 일군들과 교육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어느 한 지역에 가서는 실험기구들이 고장나 교육실천에 리용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알고 해당 공장에서 시급히 대책을 세우도록 현지에서 조직사업을 짜고들기도 하였다.

교육위원회의 책임일군은 평양시안의 교육일군들의 협의회를 열고 학교들에서 가상현실기술, 교육예측과 교육평가기술 등을 도입하여 깨우쳐주는 교수방법들을 더 많이 창조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10여건의 실리있고 우월한 교수방법들을 창조한 선교구역 룡곡고급중학교처럼 시안의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번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적극 짜고들었다.

한편 교원진영을 강화하는데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중앙대교육강습소 건물골조공사가 힘있게 추진되도록 많은 강재도 보내주었다.

교육위원회 일군들은 교육도서인쇄공장개건공사를 힘있게 내밀어 올해중에 건축공사를 끝내고 다음해까지 높은 생산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위원회에서는 자력자강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종이중간시험공장을 개건하는 한편 실험실습설비와 기구, 표본, 박제품, 악기를 비롯한 교육기자재들을 생산하는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자재보장대책을 세워주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을 펼치고있다. 이와 함께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수많은 대학들의 과학기술력량을 총발동하여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건력공업을 비롯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혁신이 일어나게 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한몫 단단히 하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적극 짜고들고있다.

위원회의 부서들에서도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하여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이 크게 작전하고 완강하게 실천해나가고있다.

과학기술정보부문과 보통교육부문을 담당한 부서들에서는 대학과 각급 학교들의 교원들에게 자질향상방향을 정확히 주고 월, 분기마다 장악총화하기 위한 지도사업을 심화시키고있으며 기술대학교육부문을 맡은 부서에서는 기술부문 대학들의 원격수학과정언을 진행하여 학생들속에서 학습열풍, 실력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도록 하고있다.

천리길도 첫걸음에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오늘의 한걸음은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의 성과를 좌우하게 될 책임적인 한걸음, 무겁고도 중요한 한걸음이다.

교육부문 일군들의 깊은 사색과 탐구가 실리고 혁신적이면서도 현실가능한 최상의 방안들을 내놓기 위한 애국의 땀방울들이 오늘의 한걸음한걸음에 무겁게 실릴 때 교육강국, 인재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되게 된다.

일군들의 혁명적열정과 높은 실력이 전투승리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이다.

하기에 이곳 일군들은 실력의 높이이자 실적의 높이라는 확고한 관점밑에 시대가 바라는 높은 자질을 소유하기 위해 열심히 학습하면서 높이 세운 전투목표들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관철해나감으로써 교육사업에서 기어이 혁명적전환을 가져올 열의드높이 오늘도 실력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우리 당의 교육중시, 인재중시사상을 현실로 꽃피워 이 땅우에 인재바다가 펼쳐지게 하기 위해 비약의 큰걸음을 힘있게 내짚고있는 교육위원회 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명훈

광범히 도입되고있는 수차식물뽐프

국가과학원 자연에네르기연구소에서

최근 국가과학원 자연에네르기연구소에서 개발한 수차식물뽐프가 전국의 많은 협동농장들에 도입되여 큰 은을 나타내고있다.

이 물뽐프는 전기와 연유를 전혀 쓰지 않고 흐르는 물을 리용하여 필요한 장소까지 물을 퍼올릴수 있는 무동력양수설비이다.

흐르는 물의 운동에네르기를 에네르기원천으로 하고있는 이 수차식물뽐프는 지역적조건에 관계없이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전문설비가 없이도 얼마든지 쉽게 만들어 리용할수 있는 우점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에네르기와 철강재, 화학제품, 식량탄제를 비롯하여 현시기 경제강국건설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합니다.》

올해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함에 대한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는데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그러자면 농장들에서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놓고볼 때 자연에네르기연구소 실장 리형연동무와 연구사들인 장금룡, 계영수동무들을 비롯한 지열장치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이 개발한 수차식물뽐프는 구조와 동작원리가 간단하여 어디서나 쉽게 만아들일수 있고 특별히 수리보수할 필요가 없이 지속적으로 리용할수 있기때문에 논밭관수에 아주 효과적이다.

이곳 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농업부문에서 심한 가물피해를 막는데서 실천적의의가 큰 수차식물뽐프를 전국의 수많은 협동농장들에 확대도입함으로써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평도업적단위의 영예를 빛내여나갈 일념을 안고 현지도입을 위한 준비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갔다.

연구소에서는 연구성과를 도입하기 위해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계도면을 보장해주는것과 함께 제작에서 나서는 기술실무적문제들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해설해주어 그들이 도입과정에 큰 지장을 받지 않도록 성의껏 도와주었다.

뿐만아니라 개발자들을 직접 현지로 파견하여 해당 농장들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각이한 용량의 수차식물뽐프들을 제작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도 제때에 풀어주었다.

이곳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자강도에서는 수차식물뽐프도입사업을 도당위원회가 직접 틀어쥐고 강하게 밀어주어 시, 군들에서의 보여주기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맞게 모든 협동농장들에 이 연구성과를 확대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고 한다.

도에서 이 수차식물뽐프를 제일먼저 도입한 어느 한 협동농장의 일군은 이제는 논밭관수에 필요한 물을 얼마든지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농장에서는 수차식물뽐프제작에 들던 일부 부분품들을 목재로 대신함으로써 철근을 절약하고 제작원가도 훨씬 낮출수 있게 되였다고 하였다.

도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지금 도에서는 흐르는 물원천이 많은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협동농장들뿐아니라 어려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이 성과를 받아들이기 위한 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고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함경북도에서도 수차식물뽐프를 시범적으로 제작설치하고 시, 군안의 많은 일군들앞에서 도적인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는것과 함께 이 성과를 다른 모든 단위들에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경제적실리가 큰 수차식물뽐프를 받아들이기 위해 연구소로 찾아오는 성, 중앙기관 일군들의 발길도 끊기지 않고있다고 한다.

지금 국가과학원 자연에네르기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연구성과를 전국의 모든 지역들에서 적극 도입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박현

사랑과 정성으로 이어진 60여일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뜻을 높이 받들고 환자치료사업에 자신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 보건일군들속에는 상농광산병원의 의료일군들도 있다.

얼마전 이곳 의료일군들은 중태에 빠졌던 한 녀성을 완쾌시켜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보호하는것은 우리의 보건기관들과 보건일군들의 본분으로, 영예로운 임무로 되고있으며 우리 의료일군들속에서는 환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피와 살, 뼈도 서슴없이 바치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소행들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습니다.》

하천군 상농로동자구에서 사는 한 녀성이 광산병원에 실려들어온것은 지난 2월이였다.

그때 당시 임신 8개월이 된 녀성의 몰상태는 몹시 위급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중태에 빠진 그를 살려내기 어렵다고 하면서 머리를 저었다.

환자의 가족들도 걱정만 하고있을 때 원장 윤학선, 기술부원장 리동혁동무를 비롯한 병원의 의료일군들은 지체없이 의사협의회를 열고 구급대책을 세워나갔다.

《어머니당의 인민사랑의 뜻을 실현해나가는 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피와 살을 바쳐서라도 기어이 환자를 살려냅시다.》

초급당위원장 김동춘동무의 호소는 병원의료일군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그때 제일 심각하게 론의된것은 임신부와 태아를 다같이 살릴수 있겠는가 하는것이였다.

병원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치료전투가 벌어졌다. 그때부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료전투가 벌어진 60여일은 뜨거운 사랑과 정성으로 이어진 잊지 못할 나날이였다.

담당의사 림춘옥동무를 비롯한 의료일군들은 환자에게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있는 한 꼭 순산하게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환자를 처음 마주하였을 때 림춘옥동무에게는 자기가 때 환자를 순산시킬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의사들의 정성이 명약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를 되새기면서 그는 치료대책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갔다.

때로는 환자의 머리맡을 뜨지 못하고 밤을 꼬박 패기도 하고 입맛을 잃을세라 친혈육의 정으로 보살펴준 림춘옥동무의 진정은 참으로 뜨거운것이였다.

림춘옥동무는 밤낮이 따로 없는 치료전투를 벌리는 속에서도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보약재도 구해오고 갖가지 건강식품들도 마련해주면서 성의를 다하였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을 피운다고 이런 뜨거운 사랑과 정성이 그대로 명약이 되여 드디여 병원에 입원한지 60여일만에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애기까지 무사히 낳게 되였을 때 의료일군들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어리였다.

애기를 받아안은 산모의 눈에서는 격정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생명을 제일 귀중히 여기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였다.

하기에 퇴원하던 날 산모와 그의 가족들은 고마운 보건제도와 훌륭한 의료일군들이 있어 산골마을의 평범한 한 가정에도 이렇게 기쁨의 웃음꽃이 활짝 피였다고 하면서 어머니당에 고마음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오늘도 광산병원의 의료일군들은 사회주의보건제도를 지켜선 우리 당의 보건전사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뛰고 또 뛰고있다.

본사기자 홍성철

심화시키고있다.

—기술교류소에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청진의학대학 의학과학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후대교육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며

벽동군 송련고급중학교 창주분교 교원 김정옥동무는 처녀시절부터 30여년동안 후대교육사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가고있다.

그는 외진 산골분교에 남편과 함께 자진하여 부부교원으로 일하면서 직업적혁명가의 영예를 안고 수많은 교편물들, 직관물들을 창안제작하였고 교수를 보다 생동하고 실효성있게 진행할수 있는 새로운 교수방법들도 많이 창조도입하였으며 결과 근직으로 소문난 실력있는 교원으로, 10월8일모범교수자로 되였다.

지난 기간 그는 학생들을 어머니의 심정으로 돌보아주면서 회우등생으로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들 모두를 조국보위초소와 사회주의건설전투장 등에 어엿하게 내세웠다.

또한 교육자로서 사업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들을 신입교원들에게 가르쳐주면서 그들이 새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도록 적극 이끌어주고있다.

로력영웅인 남편 김경수동무와 함께 부부교육자로 온 나라에 알려진 그였지만 자만을 모르고 오늘도 변함없는 한모습으로 당의 교육정책관철을 위해 피타는 노력을 기울이며 후대교육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다.

로농통신원 전준갑

병사시절의 그 모습으로

곽산군도로보수관리대에서

곽산군도로보수관리대 도로관리2소대의 도로관리원들이 병사시절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도로관리에서 집단혁신을 일으켜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제대군인들은 병사시절처럼 조국의 대지우에 피와 땀으로 애국헌신의 자욱을 새겨감으로써 참된 애국자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난 2월 어느날 곽산군도로보수관리대앞에 어느 한 구간의 다리를 긴급보수하여야 할 임무가 나섰을 때였다.

대장 송정원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한시바삐 다리를 보수하자면 선행공정인 철근가공과 휘틀조립을 빨리 다그쳐야 할텐데…)

바로 이때 그의 사색을 깨뜨리며 이런 목소리가 울리였다.

《대장동지, 철근가공과 휘틀조립을 우리 소대에 맡겨주십시오.》

목소리의 임자는 도로관리2소대 소대장 윤대하동무였다.

소대의 대부분이 제대군인, 당원들로 이루어진 도로관리2소대는 무슨 일에서나 막힘이 없고 전투력이 강한 집단이였다.

송정원동무의 머리속에는 문득 지난 1월에 있은 일이 떠올랐다.

어느날 저녁 집으로 돌아갔던 그가 갑자기 많은 눈이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듣고 일터로 나온적이 있었다.

그런데 도로관리2소대의 소대원들이 제일먼저 나와 작업준비를 서두르고있었다.

온종일 강추위속에서 도로관리를 하느라고 몹시 피곤하겠는데 조금 눈을 붙이다가 나올걸 그랬다는 송정원동무의 말에 그들은 어떻게 대답했던가.

《대장동지, 우리가 담당한 이 길이야 수도 평양과 잇닿은 길이 아닙니까.》

평양과 잇닿은 길!

이런 자각을 심장깊이 새겨안은 그들이기에 오늘도 다리보수전투의 제일 어렵고 힘든 공정을 제일먼저 맡아나선것 아니랴.

도로관리2소대의 소대원들은 병사시절 조국보위초소와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들에서 발휘하였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맡겨진 작업과제를 불이 번쩍나게 해제끼였다. 그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다리보수전투는 짧은 시간에 결속될수 있었다.

언제나 병사시절의 그 모습으로 살며 투쟁해나가는 이런 제대병사들이 많기에 일터마다에 창조와 혁신의 기상이 차넘치고 내 조국이 활력에 넘쳐 전진하는것이다.

본사기자 정영철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열어가는 비약의 지름길

618건설돌격대 평안남도려단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가지고 일해나가야 합니다.》

당의 뜨거운 은정에 의해 철령아래 고산땅에서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할 현대적인 과일가공기지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618건설돌격대 평안남도려단의 전투장에서 날마다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무닥치는 난관을 굴함없는 공격전으로 뚫고나가면서 위훈의 자욱을 뚜렷이 새기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가슴마다에 굳게 간직된 신념이 있다.

당이 준 과업을 당이 정해준 시간에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

려단일군들은 이 결사관철의 정신과 자강력으로 비약의 지름길을 찾아 대오를 이끌면서 건설을 박력있게 떠밀어나가고있다.

자기 힘을 믿으라

려단앞에는 기본생산건물의 한 부분과 여러동의 보조생산건물을 건설해야 할 과업이 제기되였다.

일군들은 구체적인 타산을 해보았다. 려단의 현존력량과 수단을 놓고볼 때 결코 헐하게 해낼수 있는것이 아니였다. 여러가지 원인으로 그전보다 로력이 매우 긴장해졌던것이다. 더욱 문제로 된것은 대대들에 기능공들이 부족한것이였다. 제기된 과업을 놓고 자신심이 없어하는 일군들도 있었다.

김길윤려단정치부장의 마음은 무거웠다.

조건타발만 하는 곳에서는 언제 가도 기적이 일어나지 못한다. 어떤 역경속에서도 자기 힘을 믿고 일떠서겠다는 신념을 모두의 심장마다에 무쇠기둥처럼 벼려주어야 한다. 그는 일군들에게 자기의 불같은 심정을 토로하였다.

당의 사상관철전은 높은 산도 제힘으로 일격에 허물어버리겠다는 담력가, 배짱가들을 요구한다.

정치부장의 절절한 호소는 일군들을 분발시켰다. 이들은 현실적인 방도를 찾아나갔다.

우선 작업조직을 실정에 맞게 혁신적으로 하는데 선차적힘을 넣었다. 여기서 중시한 문제가 있었다.

당의 뜻대로 시공을 철저히 전문화하는것이였다. 다시말하여 대대들에 기능과 숙련을 요구하는 여러 작업대상들을 고정적으로 맡겨주자는것이였다. 근거가 있었다.

사실 대대마다 로력과 수단은 각이하였다. 때문에 대대들에 일률적으로 과제를 준다면 실적에서 큰 차이가 생길수 있었다. 특히 대대들에 기능공력량이 집대적으로 부족한 조건에서 돌격대원들에게 오늘은 이 일, 래일은 저 일을 맡겨주는 식으로 작업조직을 한다면 그들이 어느 한가지도 제대로 숙련하지 못할수 있었다. 결국 작업의 질과 속도보장에 후과를 미칠수 있었다.

실력의 높이이자 실적의 높이이다. 창성한 의욕에 높은 실력이 안받침될 때 혁신을 창조할수 있다.

일군들은 이런 관점에서 해당한 조직사업들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대대들은 철근가공과 휘틀조립, 벽체미장 등 작업들을 각각 맡아 전문적으로 하게 되였다.

이렇게 하면 돌격대원들의 기능을 짧은 기간에 높여 필요한 공정들을 제때에 진행할수 있었다. 뿐만아니라 반복시공을 없애면서 높이 세운 일정계획대로 건설을 보다 힘있게 내밀수 있었다.

자기 힘을 믿을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떳떳있게 나아갈 때 건설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다. 누구나 이것을 명심하고 분발해나서니 아득하게만 여겨졌던 완공의 날도 지척으로 보는 든든한 배심을 가지게 되였다.

잠재력을 최대로 동원하여

대중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다. 중요한것은 이것을 어떻게 최대로 발양시키는가 하는데 있다. 이런 면에서 려단일군들의 사업경험은 시사적이다.

언제인가 려단정치부장이 어느 한 대대의 전투장에 나간 일이 있었다.

다른 대대들보다 력량이 약한 이 단위의 능력을 더 높일 방도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날 돌격대원들과 어울려 일하는 과정에 정치부장은 이들속에 기계속내에 밝은 사람들도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이것은 지휘부에 앉아서는 알수 없는 사실이였다.

주동적인 현장침투과정을 통하여 매 돌격대원들의 능력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한 그는 이 대대에 적합한 작업대상을 맡겨준다면 얼마든지 높은 능률을 낼수 있다는것을 확신하였다. 그후 대대는 파쇄기로 잰돌을 생산하는 공정을 맡아 수행하게 되였다. 돌격대원들의 기세가 부쩍 높아지고 대대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된것은 두말할것 없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현장정치사업, 사람들의 마음과의 사업을 함께 대한 당의 뜻대로 일하는것이 일군들의 습벽으로 될 때 잠재해있던 대중의 힘과 지혜를 기적창조에로 불러일으킬수 있다는것이였다.

일군들은 기성의 사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누구나 애썼다.

자동차와 같은 륜전기재의 대수나 로력을 타산하기에 앞서 대중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열고 진심을 나누면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보다 능동적으로 실리있게 해나갔다.

려단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자재를 현장가까이에 바싹 접근시켜 보장해주어 건설속도를 훨씬 높일수 있도록 한것을 비롯하여 일군들이 발휘한 혁신적인 일본새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이것이 귀중한 밑거름이 되여 돌격대원들속에서는 기발한 착상들이 련이어 나오게 되였다. 세멘트블럭을 충분히 다져넣을수 있도록 블로크사이간격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벽체를 든든히 쌓게 하는 방법, 버팀대를 적게 쓰면서 건물의 재양을 완성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들을 도입하여 건설한것들중에 현장지휘부적인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 대상이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좋은가.

려단의 자랑찬 현실은 힘있게 주장하고있다.

자기 힘을 믿을 때 강자가 된다!

바로 이것이다. 이 철의 진리를 걸음마다 확신하면서 려단일군들은 오늘도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비약의 지름길을 완강하게 열어제끼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이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맡은 대상건설에서 앞장서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혁신적으로 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자녀교양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강동군 남강로동자구에 사는 장혜영동무의 가정에서

사람의 성장에서 가정교양은 매우 중요하다.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가정에서 가족성원들사이에 주고받게 되는 가정교양가운데서도 자식들에 대한 어머니의 교양은 첫자리를 차지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녀맹원들과 녀성들이 자녀교양을 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녀성들 누구나가 그러하듯이 강동군 남강로동자구에 사는 장혜영동무도 자식들에 대한 교양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장혜영동무의 가정에는 할아버지의 만일애국렬사증이 소중히 보관되여있다. 그것을 펼쳐볼 때마다 그는 자기 자식들을 당에 끝없이 충실한 참된 인간으로 훌륭히 키울 결심을 가다듬군 한다.

오늘도 그는 자녀교양의 첫째가는 담당자는 어머니라는것을 명심하고 실천적모범으로 자식들을 참되게 이끌어주고있다.

몇해전부터 그는 남강탄전소에서 일하는 남편인 최경범동무와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제의 최고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는 사업에 순결한 마음을 바쳐오고있다. 그러한 부모의 모습은 자식들의 성장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

광명성절을 앞둔 어느해 일요일이였다.

맏딸 최향미가 어머니에게 자기도 금수산태양궁전을 찾고싶다고 하는것이였다. 장혜영동무는 그러한 딸이 더없이 장하고 대견하였다.

이들부부는 맏딸의 손목을 잡고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 그리고 금수산태양궁전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고 태를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정다한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이날 이들은 자기들이 성의껏 마련한 관리도구들을 금수산태양궁전의 해당 일군에게 넘겨주었다. 둘째딸 최유미도 부모를 따라나섰다.

그때부터 온 가족이 해마다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비롯한 뜻깊은 명절을 맞을 때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에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성의껏 마련한 관리도구들을 그곳 일군에게 넘겨주군 하였다.

태양만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려는 딸들의 성장이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었다.

지난해 4월 어느날이였다.

강동군 남강고급중학교 초급반 학생인 맏딸이 그린 그림을 본 어머니의 감동은 컸다. 학교의 중앙홀에 정중히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자애로운 모습을 형상한 미술작품걸에 놓을 두개의 참대화분이 그림종이우에 그려져있었던것이다.

세대주가 참대화분을 구해온 날 장혜영동무는 딸을 곁에 앉아주며 어쩌면 그런 훌륭한 생각을 다 하였는가고 젖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였다.

딸들이 커갈수록 자식들에게 기울이는 어머니의 지성은 더욱 뜨거웠다. 장혜영동무는 학교선생님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자식들이 학습과 소년단조직생활에서 모범이 되도록 힘껏 떠밀어주었다. 그리고 웃어른들을 존경하고 동무들을 사랑하도록 그들의 도덕교양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온 나라가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인 삼지연군을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설 때 장혜영동무네 가족도 혁명의 성지건설을 성심성의를 다해 지원해나섰다.

이들의 가정에서는 여러차례나 성의껏 지원물자들을 마련하여 삼지연군꾸리기에 참가한 돌격대원들에게 보내주었다.

여기 남강마을의 새날의 아침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영상작품주변관리사업으로부터 시작된다. 자기 자식들이 마을의 어른들과 아이들과 한데 어울려 영상작품주변관리사업에 지성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장혜영동무는 가슴이 후더워지군 한다.

혁명의 대는 할아버지, 아버지세대에 이어 자식들대에도 굳건히 이어지고있다는 생각과 함께 자기도 그 자식들의 앞날을 책임진 해빛바사로운 이 나라의 어머니라는 긍지로 해서이다.

본사기자 박상훈

내정간섭책동은 규탄배격을 면치 못한다

최근 꾸바가 유엔공보위원회 제40차회의에서 미국이 유엔헌장의 원칙을 비롯한 여러 국제규정들에 배치되게 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을 통한 반꾸바행위를 항시적으로 감행하고있는데 대해 규탄하였다. 유엔주재 꾸바상임대표가 폭로한데 의하면 미국은 지난해에만도 본토에서 19개의 주파수로 매일같이 반꾸바방송을 단행하였다. 그는 미국이 비범적인 반꾸바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으로 꾸바의 법질서를 파괴하려고 시도하고있다고 하면서 주권국가의 내정에 간섭할 목적으로 현대적인 정보통신기술을 리용하는데 대해 강력히 단죄하였다.

꾸바혁명승리이후에 개시된 미국의 반꾸바방송은 해가 바뀔수록 더욱 발광적으로 벌어졌다. 미국은 꾸바와 관계정상화를 실현한 오늘에도 이런 비렬한 놀음에 계속 매어달리고있다.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대대적으로 류포시키면서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정부전복을 집요하게 추구하고있는 미국의 비렬한 책동은 어지없이 드러났다.

방송을 통한 미국의 모략선전은 결코 꾸바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모략방송을 저들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전파하는데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세계제패야망실현의 도구로 리용하여왔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은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켜 무너뜨릴 목적밑에 《자유방송》과 《자유유럽방송》을 내오고 23개 언어로 이 나라들을 비방중상하는 허위보도자료들을 대대적으로 내보냈다.

쏘련이 붕괴된 후 미국은 《핵공갈로도 이룩하지 못한 〈승리〉를 방송이 가져왔다.》고 떠들면서 《자유방송》과 《자유유럽방송》을 통한 모략책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었다. 1996년에는 《자유아시아방송》을 새로 내오고 미중앙정보국예산으로 매일 15시간씩 아시아나라들의 민심을 혼란시키기 위한 방송모략선전에 달라붙었다.

1998년 5월 《아프리카를 위한 민주방송》을 내온 미국은 그것을 통하여 아프리카나라들에 반동적인 자본주의사상문화와 생활양식을 대대적으로 류포시켜왔다. 이 지역 나라들의 방송망이 설비나 기술적면에서 뒤떨어져있고 특히 방송출력이 낮은 약점을 리용하여 저들의 방송망을 통해 아프리카나라들에 썩어빠진 부르죠아사상문화를 마구 들이밀었다.

여러 나라들에서 계속되고있는 민족분쟁, 국경분쟁 등은 부르죠아사상문화적침투책동과 적지 않게 관련되어있다. 여기에서 기본역할을 논것이 바로 미국의 방송이다. 미국이 몇해전에 아랍어텔레비죤방송국을 개설한것도 아랍세계에서 인기를 끌고있는 까타르의 《알 자제라》위성텔레비죤방송을 누르고 숭미사대주의사상과 황금만능주의, 날라리풍을 류포시키기 위해서였다.

미국의 모략선전공세에서 주되는 과녁은 례외없이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이다. 이라크전쟁을 앞두고 벌린 방송선전공세가 그 단적실례로 된다.

미국은 방송을 비롯한 선전공세를 싸담정권을 뒤집어엎기 위한 주요수단의 하나로 삼았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새 소식방송국》이라는것까지 설치하고 이라크인민들에게 미국은 침략자가 아니라 《인권옹호자》, 《정화수호자》라는것, 미국이 이라크를 평정하면 이라크인민은 싸담정권의 《독재통치》에서 벗어나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며 잘살게 된다는것 등의 내용으로 된 거짓선전을 강화하였다.

한편 저들의 군사기술적우세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이라크군대와 인민이 저들에게 맞서는것은 부질없는것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주입하였다. 이라크군대와 인민이 침략세력과 맞서 번번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한것은 미국의 집요한 방송모략선전책동에 속아넘어간데 그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있다.

미국은 인류가 창조한 현대과학기술수단들을 리용하여 심리모략전의 효과를 최대로 높이고있다.

오늘날 인터네트와 위성통신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휴대용전화기들이 사용되면서 사람들은 임의의 시각에 필요한 대상들과 대화하고 교류할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임의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화상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볼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정보기술의 이러한 특성을 리용하여 세계에 새로운 심리모략전무대를 펼쳐놓고있다. 현대과학기술수단들을 리용하여 심리모략전을 벌리는것은 미국의 국책으로 되고있다. 언제인가 미첼보기관 우두머리는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텔레비죤과 소리방송, 전자우편, 확성기, 신문, 잡지, 삐라 등 심리전의 무기들을 총동원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의 기분상태와 사유능력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떠벌였다. 이것은 미국이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려고 심리모략전에 얼마나 발악적으로 매달리고있는가 하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은 그것을 반대하는 일대 사상공세를 벌리는 나라에서는 절대로 통할수 없다. 우리 나라의 현실이 그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1997년초부터 우리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조선말방송을 시작하였는데 방송프로를 늘이기 위해 1998회계년도에만도 200만US$의 자금을 랑진하였다. 전자매체와 라지오 등을 통하여 우리를 겨냥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더욱 확대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얼마전에도 미국은 우리를 겨냥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에 USB기억기와 휴대용전화, 무선인터네트 등 전자매체들과 정보기술들을 총동원하여 활용한다는것과 조선에 들어보내는 정보내용을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의 썩어빠진 음악과 영화, 연극 등으로 대폭 확대한다는데 대하여 공식화하였다.

그러나 온갖 퇴폐적이며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혁명적인 사상문화로 쓸어버리려는 공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은 물거품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있다.

자주를 지향하는 나라들은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을 각성있게 대하고 그것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할것이다.

리 현 도

가긍한 처지에 빠진자의 단말마적발악

시대적감각이 무디고 현실을 제대로 볼줄 모르는 일본정객들의 정치적미숙성이 또다시 드러났다.

얼마전 일본수상 아베는 어느 한 나라를 행각하면서 조선은 반드시 전면적으로 핵을 포기해야 하며 일본을 사거리인에 두고있는 미싸일발사를 중지하는것이 필요하다는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그런가 하면 내각판방장관 스가는 조선의 비핵화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나발을 불어댔다.

그야말로 주제넘는 싱거운 짓거리이다.

조선반도문제는 일본이 참견할 일이 아니다. 더우기 우리 공화국을 과녁으로 삼고 령도주변에서 미국, 영국 등과 때없이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는 일본이 우리의 군사력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하는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언동이다.

일본집권자들은 앉을 자리, 설자리를 가리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싸다니며 좋게 나아가는 조선반도정세흐름에 제동을 걸어보려고 분수없이 놀아대고있다.

날로 가긍해지고있는 처지에서 벗어나보려는 단말마적인 발악에 불과하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운명, 평화보장문제를 론의하는 자리에 일본은 끼우지 못하고있다. 누구도 그 자리에 자기의 똑바른 주견과 주대가 없이 남의 하수인노릇이나 하며 돌아다니는 일본이 꼭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있다. 오히려 복잡성만 조성하는 시끄러운 존재로 여기면서 따돌리고있다. 일본은 지역에서 말그대로 개밥에 도토리신세가 되였다.

정치대국흉내를 내며 어깨를 잔뜩 올리고 다니던 일본의 신세가 참으로 가련하게는 되였다.

일본은 아무리 속이 뒤틀려도 할 말이 없게 되여있다. 올해에 들어와 못되게 놀아댄 제 행실부터 돌이켜보아야 한다.

우리는 올해 년초에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위하여 통이 큰 주동적인 발기와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그에 의하여 북남고위급회담이 진행되고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성과적으로 치르어졌다. 조선반도에는 긴장완화의 기운이 감돌고 온 세계가 이에 환영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어떻게 나왔는가.

우리의 뜨거운 민족애, 동포애가 넘치는 대용단이 공표되자마자 아베가 직접 유럽나라들을 싸다니며 《북조선이 원뉴스와 베오그라드도 사거리에 넣을수 있는 탄도미싸일을 발사하였다.》, 《유럽전체에 있어서도 중대한 위협이다.》, 《최대한의 압력을 통해 북조선의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심사가 삐틀어진 소리를 하였다. 외상 고노도 아람추장국과 카나다를 돌아치면서 《〈미소외교〉에 헛눈 팔아서는 안된다.》는 등 악의에 찬 망발을 늘어놓았다. 지어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에 머리를 들이민 아베는 행사가 끝나면 즉시 군사연습을 강행해야 한다는 고약한 나발질도 서슴지 않았다.

일본의 속심은 어떻게 하나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악화시키는것과 동시에 대조선압박공조분위기를 조성하자는데 있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일본이 추구하는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다.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 발표되였다. 미국무장관 폼페오가 조미수뇌회담준비를 위하여 평양을 찾아왔다.

일본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만 골두하던 나머지 조선반도문제에 머리를 들이밀 체면마저 잃었다.

그 누구를 탓할것이 못된다. 일본은 제스스로가 제눈을 찌르는 바보짓을 하였다.

외신들이 《일본은 오래동안 평양에 대해 강경한 립장을 취해왔지만 그로 하여 자기들이 밀려났음을 발견하였다.》고 평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앞으로 일본이 지역에서 외토리신세를 면할수 있는 길은 있다. 그것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는것이다.

일본의 정객들에게 다시한번 충고하건대 리팔만 한 리성이라도 남아있다면 덮어놓고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는 고집적인 나쁜 버릇을 버려야 한다.

만일 구태의연하게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고집하는 길로 계속 나간다면 그로부터 얻을것은 지역에서의 고립과 정치적파산뿐이다.

리 학 남

력사의 준엄한 심판대에 나서야 한다

가뜩이나 미운 털이 박힌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해괴망측한 추태를 부려 여론의 비난을 사고있다.

지난 3일부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를 비롯한 이 반역당의 어중이떠중이들이 선거부정사건이라고 하는 《드루킹》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국회》청사앞에 천막까지 쳐놓고 단식놀음을 벌린것이다.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이 추악한 꼬락서니는 시대의 흐름에서 밀려나 숨이 넘어가게 된자들의 히스테리적인 지랄발광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동족대결의 악명높은 소굴인 《자유한국당》은 력사적인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판문점선언채택의 거대한 폭풍으로 쑥대밭이 되였다.

민족적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민심의 지향을 짓밟으며 못되게 놀아대던 대결미치광이들은 각계의 증오와 버림을 받고 력사의 무덤속에 처박혀야 할 비참한 운명에 처하였다.

다가오는 지방자치제선거에서의 대참패가 날로 명백해지자 당황망조한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드루킹》사건을 극구 여론화하면서 집권세력을 물고늘어지는데서 그 출로를 찾고있다.

《자유한국당》것들이 《국회》를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가 단식통성이라는 광대극을 벌쳐놓은것은 저들에게로 쏠린 분노한 민심의 눈길을 어떻게 하나 딴데로 돌리고 파멸의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술책이다.

가관인것은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한가닥의 미련을 품고 벌려놓은 단식통성광대놀음이 여론의 눈길을 끌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각계의 비난과 배격만 받은 사실이다.

며칠전 단식을 한다, 특검도입을 요구한다 하며 분수없이 놀아대던 김성태가 역적당에 환멸을 느낀 30대의 한 청년에게 력주가리를 한대 얻어맞고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청년은 한때 《자유한국당》 지지자였다고 한다.

남녘민심의 지향과 요구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권력야욕실현에만 미쳐날뛰며 남을 걸고드는 그 꼴이 얼마나 혐오스럽고 역겨웠으면 지난날 《자유한국당》을 지지해나섰던 주민까지 분노의 주먹을 날렸겠는가.

김성태가 당한 봉변은 온 겨레와 전세계가 지지환영하는 판문점선언에 도전해나서는 반통일역적무리, 추악한 정치간상배들에 대한 민심의 단호한 징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것들은 지금도 적이 때를 드는 격으로 이 사건을 코에 걸고 벤벤스럽게 놀아대고있다. 홍준표역도를 비롯한 《자유한국당》패들은 《야당에 대한 정치테로사건》이 발생했다고 고아대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그 배후를 밝혀내야 한다고 피대를 돋구고있다.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이번 사건을 자주통일에로 향한 시대흐름에서 밀려나 버림받고있는 저들의 궁색한 처지를 모면하고 여론의 동정을 사는 계기로 삼아보려고 발광하고있지만 그것은 부질없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이 반역통치와 동족대결에 환장해 날뛰면서 온갖 못된짓을 다해온 《자유한국당》에 침을 뱉고 등을 돌린지는 오래다.

진보련대와 민중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 단체들과 정치세력들, 각계층 인민들은 한결같이 김성태가 얻어맞은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잘코사니라고 야유, 조소하고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단식통성장옆에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지지하는 구호들을 내다걸고 반통일역적당을 조롱하였다.

대문밖이 저승인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민심을 꼬드기며 불순한 목적을 실현해보려고 발광해도 차례질것은 랭대와 망신, 파멸밖에 없다.

《자유한국당》패들은 《테로》니, 《진상규명》이니 하고 떠들기 전에 저들이 왜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받는가를 스스로 돌이켜보고 력사의 준엄한 심판대에 나서야 한다.

지금처럼 놀아대다가는 오늘은 원내대표 하나가 얻어맞았지만 래일은 보수패당이 통채로 천벌을 맞고 무덤에 처박히게 될것이다.

《자유한국당》패들은 저들같은 인간폐물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평화와 번영, 통일에로 향한 대하를 막을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심 철 영

개밥에 도토리신세가 된 보수야당두목

최근 《자유한국당》 대표라고 하는 홍준표가 자기 패거리들로부터 배척당하는 불우한 처지에 처하였다.

남조선 전지역에서 얼마후에 있게 될 지방자치제선거에 나선 《자유한국당》 후보들속에서 홍준표의 선거유세지원을 반대하는 현상이 농후하게 나타나고있는것이 그 한 실례이다.

남조선언론들에 의하면 충청남북도지역의 후보들은 홍준표가 지역에 찾아와 선거유세를 도와주는것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며 내놓고 불만을 표시하고있다.

《자유한국당》의 머말이라고 하는 대구와 경상북도지역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있다.

시장선거후보들은 홍준표와 정면으로 맞서는가 하면 지어 억도에게 탈당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뿐만아니라 현직에 있는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도 홍준표를 로골적으로 경시하고있다. 홍준표의 이러한 신세는 제손으로 제눈을 찌른것과 같은 필연적결과이다.

홍준표는 이번 북남수뇌회담의 결과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앙탈을 부리다 못해 판문점선언을 《과거보다 후퇴한 합의》니, 《말의 성찬》이니 하고 헐뜯었다.

지어 《민족자주원칙이 북의 대표적인 통일전선전략이자 한국내 주사파들의 리념적토대》이므로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통과시킬수 없다고 무작정 악을 쓰고있다.

이렇게 광통속에 대결리념만이 박 들어찬 억도이기에 이번 선거에서도 상투적수법그대로 《안보》타령을 늘어놓으며 저들 패거리의 선거유세를 도와준답시고 지역들에 나가 북남수뇌상봉을 악의에 차서 헐뜯었다.

이것이 판문점선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각계층으로부터 어떤 비난을 자아내겠는가는 묻지 않고도 짐작할수 있다. 이때문에 선거유세에 나선 같은 당 후보들까지 걸불을 맞아 민심의 전면적인 배격을 받고있는것이다.

천하의 대결악당을 섬겨온데로부터 민심의 버림을 받는데 위구감을 느낀 후보들은 물론 같은 당 패거리들도 박근혜를 제지할 때처럼 홍준표와 선을 그으며 그의 탈당문제까지 거론하고있는것이다.

홍준표역도는 개밥에 도토리신세가 된 근원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새겨보아야 한다.

사회적진보에 역행하여 리명박, 박근혜《정권》시기의 친미사대매국과 동족대결정책, 반인민적악정을 되풀이하려고 악을 쓰는 역적들에게 차례질것이란 파멸뿐이라는것은 력사가 증명하고있다.

남조선단체 초불민심의 요구를 끝까지 실현할 의지 표명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단체의 명칭을 민중공동행동으로 개칭하고 초불민심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벌려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10일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앞에서 진행되였다.

발언자들은 민주로총, 전국농민회총련맹, 민민해방실천련대, 진보련대를 비롯한 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의 사명은 초불투쟁으로 박근혜《정권》을 퇴진시킨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의 뒤를 이어 민심의 요구를 끝까지 관철하는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1년전 초불의 힘으로 리명박, 박근혜의 적폐《정권》을 끝내내였지만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민심의 요구는 실현되지 못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선언문이 발표되였다.

선언문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박근혜《정권》의 특정에 맞서 《정권》퇴진이라는 시대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였다고 밝혔다. 박근혜《정권》을 퇴진시킨지 1년이 지난 오늘 초불의 힘은 평화의 봄과 함께 새로운 민주주의의 봄을 부르고있다고 선언문은 지적하였다.

선언문은 박근혜《정권》의 적폐인 《싸드》를 철거하고 일본과의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근혜《정권》의 방해와 조작으로 은폐된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선언문은 요구하였다.

선언문은 초불민심의 요구를 끝까지 실현하여 민주와 민생, 평화와 통일의 봄을 앞당겨야 한다고 하면서 민중의 봄, 민중의 세상을 안아오기 위해 변함없이 투쟁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광주인민봉기당시의 성폭력만행을 철저히 조사할것을 주장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10일 광주인민봉기당시 《계엄군》이 감행한 성폭력만행을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들을 엄격히 처벌할것을 주장하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최근 광주인민봉기당시 《계엄사령부》 수사관이라는자와 《계엄군》의 성폭행만행이 드러난데 대해 폭로하였다.

가해자들의 악행은 학살만행에 못지 않게 충격적이라고 사설은 단죄하였다.

사설은 당시 전남대학교 학생이였던 피해자가 실습현장에서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련행되여 65일동안 감옥에서 고문을 비롯한 온갖 폭행을 받았다고 까밝혔다.

피해자가 《계엄사령부》의 계장이라고 하는 수사관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사설은 그로 인해 통제로 잃어버린 그의 인생은 무엇으로도 보상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이였던 또 다른 피해자도 학교에서 집으로 가던 도중 5명의 공수부대 사병들로부터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사설은 폭로하였다.

사설은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하여 정신병원에 들어가있다가 세상을 뜨지고 녀중이 되였다고 밝혔다. 사설은 성폭력만행을 끝까지 조사하여 가해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유한국당》패거리의 행태를 비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10일 민중당에 대한 《자유한국당》패거리의 행태를 비난하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홍준표가 민중당에 대해 빨갱이망언을 늘어놓은데 이어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같은 악담을 하였다고 까밝혔다.

지난날 보수세력은 빨갱이발언으로 《종북몰이》를 앞세워 정치관을 《색갈론》으로 휘저었다고 사설은 비난하였다.

사설은 《자유한국당》이 때아닌 《색갈론》으로 민중당을 모독하는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단죄하였다.

못된 버릇을 무기로 삼고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혹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사설은 주장하였다.

사설은 분렬을 악용하여 기생해온자들의 적대적언어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 조 선 단 체
요시찰명단작성자처벌 등을 당국에 요구

남조선의 《매일경제신문》에 의하면 8일 문화예술계요시찰명단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진상조사결과와 제도개선정형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단체는 리명박, 박근혜《정권》의 요시찰명단작성으로 8 931명의 문화예술인들과 342개의 단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리명박《정부》가 정보원의 비밀자료에 기초하여 요시찰명단을 작성하였으며 박근혜《정부》는 정보원과 문화체육관광부사이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명단에 들어있는 문화예술인들을 박해하도록 하였다고 단체는 규탄하였다.

단체는 문화예술계요시찰명단작성사건에 대한 《정부》의 사죄, 책임자 및 가해자들의 처벌, 피해자명예회복,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평화를 파괴하는 미국의 무기수출책동

얼마전 미국이 무인기의 수출규제와 무기수출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미국은 형식상으로나마 《안전보장》상의 리유로 무인기수출만은 극력 제한해왔다. 그에 따라 무인기수출을 주로 동맹국에 한해서만 허용하여왔다. 그러던것을 이번에 인디아와 중동의 여러 나라들에 마음먹은대로 수출할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복잡하게 만들어놓았던 상용무기와 그 부분품들에 대한 수출절차를 간소화하여 미국제무기를 주문하는 나라들에 신속히 판매할수 있게 하였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국내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떠들어대고있다.

미국경제는 최대로 군사화되여있다. 미국이 무기수출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출을 확대하려는 리면에는 국내의 군수독점체들의 리익을 보장해주려는 속심이 잠겨있다.

원래 미국정부와 군수독점체들은 특수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미국정치의 실제적인 조종자는 행정부나 국회가 아니라 막대한 돈주머니를 차고있는 군수독점체들이다. 례컨대 미국정객들은 모두가 자국내 군수독점체들의 사환군, 대변자들이였다. 군수독점체들의 리익을 위해 세계곳곳에서 정세를 긴장시키고 끊임없이 전쟁을 벌려왔다. 정부는 군수독점체들을 위해 무기수출을 장려하는것은 물론 다른 나라들에 대한 대대적인 군수품수출계약으로 판로까지 개척해주고있다.

미국의 무기수출확대는 침략적인 대외정책의 연장이다. 미국은 동맹국들에 군수품을 제공하여 저들의 무장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며 무기수출을 공간으로 하여 세계열점지역들의 정세에 개입하고 조종통제하려 하고있다. 또한 동맹국들에 대한 무기수출을 통해 전략적적수들을 견제하고 압도하려 하고있다. 미국이 이번에 무인기수출규제와 무기수출절차를 간소화한것은 결국 무기수출판로를 전세계에로 넓혀 그를 통한 지배주의적지위를 확대강화하려는데 또 다른 속심이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세계최대의 무기수출국의 자리를 한번도 양보해본적이 없다.

스웨데에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의 무기수출량이 그전시기에 비해 25% 증가하였다고 하면서 미국은 여전히 세계적인 무기판매에서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까밝혔다. 한 감시단체가 밝힌데 의하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미국의 무기수출총액은 악 810억US$에 달하였다. 미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이 무인기수출규제를 완화하였기때문에 세계무기시장에 무인기가 차넘치고있다고 보고있는 미국은 무인기수출규제를 간소화함으로써 무인기시장에서 다른 나라들을 몰아내고 패권을 쥐려 하고있다. 만약 그렇게 되는 경우 무인기를 둘러싼 각국의 군비경쟁이 보다 치렬해질것은 불보듯 뻔하다. 정세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세계 각지에서 분쟁을 더욱 부추기게 될것이라고 우려하고있다.

현재 전란과 류혈참극이 계속되고 군사적대립이 첨예한 나라와 지역들에서는 미국제무기들이 판을 치고있다. 미국이 뿌려놓은 수많은 무기와 탄약들은 여러 지역에서 군사적분쟁과 내전을 더욱 부추기고 평화와 안전을 교란, 파괴하는데 리용되고있다.

복잡한 중동지역정세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반테로전》의 미명하에 이라크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살인무기들을 중동지역에 공개적으로 들이밀어 지역정세를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에 빠뜨려놓았다. 이란의 《위협》설을 내돌려 주변나라들속에 지역안전과 평화에 대한 불안과 위구심을 조성시켜놓고 그들에게 무기를 팔아먹고있다. 이것은 곧 지역의 군비경쟁을 조장시키는 원인으로 되고있다.

미국은 저들의 무기를 구입하는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예속시키려 하고있다. 미국제무기를 구입한 나라들은 어차피 무기수리에 필요한 부속품들도 미국으로부터 계속 수입해야 한다. 해당 무기들에 따르는 군사작전들과 원리들도 미국의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중에는 자연히 군사적으로 미국에 예속되고만다.

미국은 무기수출로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테로행위를 조장시켜 해당 나라들의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를 구실로 군사적간섭과 무력침공을 일삼고있다. 수리아반란세력에게 현대적인 무기들을 제공해주면서 그들을 정부전복에로 내몰고있는것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많은 나라 정세분석가들이 오늘날 미국이 저들의 무기를 계속 팔아먹기 위해 적을 고의적으로 만들어내고있다고 하면서 국제정세가 평온하면 무기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게 되므로 여러 지역들에서 정세를 긴장시키고있다고 주장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저들의 지배주의적목적실현과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워 국제사회를 소란스럽게 만드는 미국이야말로 세계평화의 교란자, 파괴자이다.

본사기자 김 수 진

미국의 이란핵합의탈퇴결정 비난

중국외교부 대변인 경상이 9일 기자회견에서 이란핵합의로부터의 미국의 탈퇴결정에 유감을 표시하였다.

그는 이란핵합의는 다무적인 합의로서 각측은 마땅히 이를 성실히 리행하고 수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현정세하에서 중국은 각측이 책임적인 태도로 정치 및 외교적인 해결방향을 견지하고 의견상이를 타당하게 관리통제함으로써 합의가 계속 리행되도록 노력할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하였다.

꾸바외무성이 9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이 이란핵합의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에 대해 비난하였다.

성명은 국제적인 공약들을 준수하지 않는것은 국가들사이의 공존규칙을 어기는것으로 되며 중동의 안정과 안전에 심각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꾸바정부는 임의의 나라를 반대하여 일방적인 경제제재를 가하는것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성명은 평화적목적을 위해 핵에네르기를 개발하려는 모든 나라들의 합법적권리를 지지한다고 강조하였다.

성명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자기의 책임을 다할것을 유엔안보리사회에 요구하였다.

이란에서 반미시위

이란의 수도에서 11일 미국의 핵합의탈퇴결정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 참가한 수천명의 각계층 군중은 《미국에 죽음을》이라고 쓴 프랑카드를 들고 반미구호들을 웨치면서 거리를 따라 행진하였다. 시위자들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핵합의로부터의 탈퇴를 선포한데 대해 규탄하면서 미국의 압력책동에 완강히 맞서나갈 립장을 강조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 련쇄적인 폭탄테로사건으로 인명피해

인도네시아 동부자바주의 소재지 쑤라바야에서 13일 련쇄적인 폭탄테로사건이 발생하였다.

3개의 교회당을 목표로 련속 감행된 폭탄테로행위로 13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고 수십명이 부상을 입었다.

테로공격자들은 일요예배를 하러 온 사람들로 붐비는 교회당안에 직접 들어가 자폭공격을 단행하거나 승용차에 설치한 폭탄을 터뜨려 많은 통전기재들도 파괴하였다.

국제테로조직인 《이슬람교국가》는 저들이 이번 테로공격을 단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인도네시아대통령 죠꼬 위도도는 폭탄테로사건이 인도네시아의 종교 및 문화전통을 반대하는 극악무도한 행위로 된다고 하면서 전사회적으로 테로와의 전쟁을 과감히 벌려나갈것을 호소하였다.

인도네시아 종교 및 사회단체들과 세계 여러 나라들, 국제기구들이 테로분자들의 잔인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ㄱ-81077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6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